

2022. 1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2022. 1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이 보고서를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본 기관에 의뢰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사회투자지원재단

상 임 이 사	김 유 숙
책임연구원	송 현 성
연 구 원	이 경 원

목차

제1장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취지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27
2. 연구 방법 및 내용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30
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30
1)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30
2) 2017~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 사례	30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33
1) 충남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33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33
3. 2022년~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37
1) 국정과제	37
2) 대선 공약	37
제3장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수립	39
1. 일반현황	39
1) 지역현황	39
2) 분야별 이슈	41
3) 이슈 대응(서천군 정책)	42
2. 서천군 사회적경제 현황	43
1) 민간 현황	47
2) 관(행정) 현황	47
3.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현황	54
1) 진행 개요 및 참석자	54
2) 회차별 진행 결과	55
3)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	56

목차

제4장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결과	80
1. 모니터링 진행 개요	80
1) 모니터링 배경 및 목적	80
2) 모니터링 진행개요	80
2. 지역별 사업 진행 개요	81
1)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공주	81
2)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당진	82
3) 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논산	84
4) 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서산	86
제5장 정책제언	96
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의지 강화 필요	96
2.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99
3.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101
참고자료	104
- 참고문헌	104

표목차

<표 1-01>	충남도 시·군별 사회적경제 현황	27
<표 1-02>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수준	28
<표 3-01>	서천군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49
<표 3-02>	서천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공공구매 현황	51
<표 3-03>	서천 사회적경제기업 품목별 구매 금액	51
<표 3-04>	서천 사회적기업 내부/외부 구입 비율	52
<표 3-05>	서천군청 부서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현황	52
<표 3-06>	서천군청 예비사회적기업 품목별 공공구매 현황	53
<표 3-07>	서천군청 예비사회적기업 내부/외부 구입 비율	53
<표 3-08>	서천군청 예비사회적기업 부서별 구매 비율	53
<표 3-09>	서천군청 사회적협동조합 품목별 구매비율	54
<표 3-10>	서천군 사회적협동조합 내부/외부 구입 비율	54
<표 3-11>	서천군 사회적협동조합 부서별 구매 비율	54
<표 3-12>	서천군 마을기업 품목별 구매 금액	54
<표 3-13>	서천군 마을기업 내부/외부 구입 비율	55
<표 3-14>	서천군 마을기업 부서별 구매 비율	55
<표 3-15>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실행 주체	56
<표 3-16>	서천군 워크숍 회차별 진행	57
<표 3-17>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구매 현황 조사 계획	59
<표 3-18>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계획	59
<표 3-19>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공통 지표’ 합계	60
<표 3-20>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기초조사 세부 결과	61
<표 3-21>	서천 상호거래 제안 상품	67
<표 3-22>	서천 먹을거리 판매와 유통과 관련된 공공영역 사업 아이템 제안	77
<표 3-23>	서천 문화예술 기반 지역 관광 및 투어	78
<표 3-24>	서천 예초 및 조경과 관련된 공공영역 사업 아이템 제안	79
<표 4-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지 모니터링 진행 개요	80

그림목차

[그림 1-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	25
[그림 2-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32
[그림 2-2]	충남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33
[그림 2-3]	충남 따숨몰 운영 원리	36
[그림 3-1]	서천군 경제활동인구 구조(2020년)	40
[그림 3-2]	서천군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43
[그림 3-3]	서천군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44
[그림 3-4]	서천군 협동조합 현황	44
[그림 3-5]	서천군 전체 프로세스	54
[그림 4-1]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략체계도	81
[그림 4-2]	당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략체계도	82
[그림 4-3]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84
[그림 4-4]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3개년 전략 체계도	86
[그림 5-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 의지 강화 필요	96
[그림 5-2]	의제별 관련 부서 정기 논의구조 사례	98
[그림 5-3]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99
[그림 5-4]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10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난 10년 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와 매출,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 한편,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조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기존의 목표달성 중심의 성과모델 보다 사회적자본인 외부 협력조직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들에게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했을 때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1년에 실시한 사회적경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네트워크 수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음(평균2.88)
- 이에 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의제 개발과 중장기 전략 사업에 참여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천안시¹⁾ 등 5개 지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외부적 지원과 네트워크 내부의 노력이 만났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 연구 목표

- 2020년, 2021년 사업의 경험으로 유추할 때 지역별로 네트워크의 수준과 과제는 각기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동일한 프로세스로 설계하기 보다는 지역 내 네트워크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연구 목표를 수립하고자 함

1) 천안시사회적경제연대는 2018~2019년에 사회투자지원재단과 함께 네트워크 설립과 중장기전략수립 연구 및 워크숍을 진행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제를 도출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공동으로
 - △ 선정된 지역의 현안과 정책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 △ 민간 네트워크의 비전과 중기핵심전략을 도출하며
 - △ 사회적경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역별 특화영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 △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중단기 전략을 구상
- 더불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충청남도 4개 지역(당진, 공주, 서산, 논산)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활동이 2022년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 문헌조사

- 기존 문헌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보수집과 지역 현안 취합
- PEST(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석

(2) 지역 현안 분석 : 문헌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 지역의 현안사항 및 지역사회 핵심 문제(이슈)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업종별 현안 사항 조사 및 애로사항 분석

(3) 이해관계자 조사 : FGI, 인터뷰, 간담회

-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연대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의 핵심과제 및 전략에 대한 조사
- 지역의제별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한 예비 지역의제 취합 및 지역의제화 심층 논의
- 지원조직 및 관련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논의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욕구 파악

(4) 전략 및 비전수립을 위한 의제워크숍

-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의 적용
 - 액션 러닝은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팀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득, 질문, 성찰 등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으로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각 지역의 의제별 워크숍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
- 의제 및 의제발굴 주요 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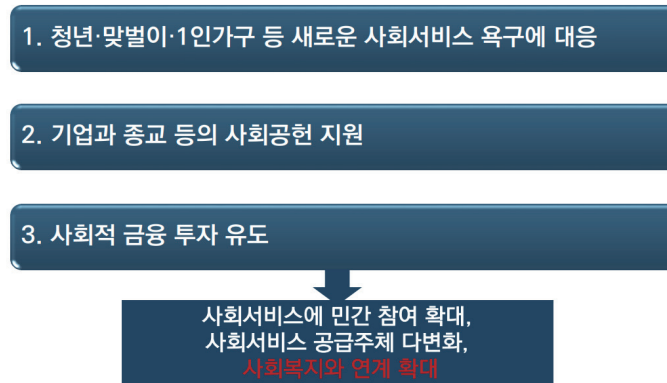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 분석

1. 중앙정부

- 2017~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사례

정책		지역 사례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금융분야	- 충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19.10.30)
	판로분야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충남따숨상사 & 따숨물) -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 2020년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선정(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혁신분야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건립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충남 중점 지원 분야 : 스마트유통, 전통웰빙식품, 언택트컨텐츠
사회적가치 구현 노력 강화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 서천 한산 청년자립공동체 : "삶기술학교" -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 서천군 장항읍 성주지구(도시재생 인정사업), 장항읍, 한산면(도시재생 예비사업) -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 2022년~(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2. 충청남도

분야	정책	목적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특화된 분야의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으로 창업준비자의 원활한 사회적경제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역/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교류 및 협업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력성장 기반강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등 지속 성장 유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 소셜셀러 육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비대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충남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과 마케팅을 컨설팅 및 지원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제3장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 수립

1. 워크숍 진행 개요

회차	일자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1회차	22. 4/28(목)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박창순, 박근준, 이재훈,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서천군 문헌조사 내용 공유 - 네트워크 주요 과제 및 목표 논의
2회차	22. 5/12(목)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이재훈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구매 조사 계획 논의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계획 - 중간 공유회 준비
3회차	22. 6/29(수) 서천군 문헌서원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이재훈, 임은순, 이미숙, 박종우, 이창기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김현아 (충남사경) 강윤정 (서천군청) 강선기, 석준기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서천군청 공공구매 분석 결과 공유 - 서천군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 분석 결과 공유 - 서천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가치 기초조사 결과 공유

회차	일자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4회차	22. 7/28(목)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강성구, 박창순, 이명하, 이창기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사회가치조사 결과 공유 및 향후 진행과제 - 공공시장 분석결과 활용방안 논의 - 사회적경제 생산품, 서비스 조사 결과 공유 및 활용방안 논의
5회차	22. 8/8(월) 서천표고 버섯영농조합, 해미S&F영어조합법인	박창순, 이창기 (연구진) 김유숙	- 사회적가치측정 집중컨설팅 - 사회적가치 공통지표, 개별지표 도출
6회차	22. 8/19(금)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신경식, 이재훈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1차 결과물(안) - 사회가치 선포 - 상호거래 약속 - 공공구매 제안 ·활용방안 및 역할분담
7회차	22.09.28(수)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이창기, 이재훈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충남사경) 강윤정,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사회가치 조사 결과 - 지표 추가 논의 - 활용 및 확산 방안 논의 - 향후 필요 사항 논의 ·상호거래 제안 상품 리스트 - 활성화 아이디어 - 추진계획 ·공공구매 세부 분석 결과 - 예초 및 조경 부분 - 학교 급식 부분 - 체험 부분

2. 주요 의제 및 과제

1) 주요 의제

- 사회적경제 가치에 맞는 네트워크 정체성 확립 및 활동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고 싶음. 그래서 지역에서 행정에서도 네트워
크를 바라보았을 때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길 바람
 -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함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람
- 네트워크 업종(분과)별 필요 파악 및 실행방안 도출
 - 네트워크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내부적인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진행되길 바람
 -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조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람(서류상 결과
물이 아닌)

2) 주요 과제

-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구매 현황 조사
-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서비스 조사
-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 과제 목표

-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시장 기초 데이터 수집
-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서비스 리스트 도출
-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25개 조직) 사회적 성과 목표 도출

• 기대 성과

- 사회적가치 측정 및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정체성 확립
- 공공구매·상호거래 활성화를 통한 재정적 안정화

3. 의제 실행 결과

1)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가치 조사

• 조사 결과

- 응답 수 : 12곳(사회적기업 6곳, 예비사회적기업 4곳, 협동조합 2곳)
- 참여기업 : (주)오르비스, 뜰엔향기협동조합, 오석영농조합, 해미S&F영어조합법인, 바다엔플러스협동조합, 강항청년아이스브레이크 협동조합, 모시촌협동조합, 주식회사 새날, 서천군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서천마산협동조합,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전통예술단 혼

2022년도 사회적가치 목표			
공통지표	지역소멸 극복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13명
	지역경제활성화	서천군 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71명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매출액)	48억9천만 원
	삶의 질 향상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6천7십만 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61명	
개별지표	본문 참조		

• 활용 방안

- 각 조직 및 네트워크 차원에서 사회적가치 창출 독려
 - * 예시) 총회 때 사회적가치 창출 약속 → 이후 정기적 확인, 우수 달성 조직의 경우 시상
- 대외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
- 매년 5월 사업보고서 제출 전 점검 수단으로 활용(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해당)

• 확산 방안

- 네트워크 행사 때 우수 기업 시상
- 네트워크 회원사 가입 신청서 양식에 포함
-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피 문구와 함께 전달하면 더 좋을 것

• 사업담당자

- 강성구 대표(사회적가치 정기적 확인 진행)

2) 상호거래 제안 상품 리스트

연번	업체명	상품명
1	서천마산협동조합	자연양계유정란
2	서천군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	생표고버섯, 건표고버섯, 표고버섯 배지키트
3	해미S&F영어조합	전장김, 도시락김, 김자반
4	(주)오르비스	모시네크리스, 모시링, 모시마스크스트랩
5	(사)한산모시조합	모시양말, 모시손수건, 모시브로치, 필모시
6	오석영농조합	현미수제누룽지, 흑미수제누룽지
7	뜰엔향기협동조합	모시비누, 동백비누, 지게미 비누 등
8	아이맘협동조합	생들기름, 아로니아식초
9	(주)새날	청소, 소독

- 상호거래 활성화 아이디어
 - 상호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네트워크 기금으로 축적
 - 네트워크 행사 때 상호거래 약속 행사 진행
 - 네트워크 가입신청서에 포함
 - 네트워크 정관에 상호거래 활성화 내용 포함 (예시 : 1년에 100만원 상호거래해야 함)
- 추진 계획
 - ① 상호거래 구매 희망 조사(22년 10월~11월)
 - ② 네트워크 행사 때 상호거래 의미와 성과 공유(상호거래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의미 있는 상호거래 성과가 나올 시 → 정관 개정을 통해 상호거래 의무 조항 반영(23년 2월)
 - 미약한 상호거래 성과가 나올 시 → 각 기업별 매출액의 0.5% 상호거래 권고 혹은 의무조항 반영
- 추가 아이디어
 - ① 상호거래 구매 희망 조사(22년 10월~11월)
 - 상호거래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나눔/기부를 서로에게 하는 것도 좋을 것
 - 연말 네트워크 행사 때 시상상품으로서 네트워크 참여기업 후원 물품 활용
- 사업담당자
 - 박대수 대표(상호거래 활동 진행)

3) 공공영역 사업 아이템 제안

- 먹을거리 판매와 유통
 - ①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납품 : 먹거리 1차 생산품 및 가공품에 대한 수급 및 공급 분석
 - 공공기관 급식 및 사회복지시설 식당(무료급식) 등에 납품 조율
 - ② 학교급식 전략적 접근 상품 개발 : 학교급식 납품하는 기존 조직 중심으로 Tf 구성
 - 공급 품목, 공급 및 수급시기 정리 → 급식센터 및 개별 학교 MOU

- 문화·예술·체험 기반한 지역 관광 및 투어
 - ① 생태, 체험 기반 관광투어 상품개발
 - 생산기반 사회적경제조직과 체험, 제조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상품을 패키지화
 - 특히 각 학교의 농촌체험, 현장체험, 교과연계체험학습을 공략할 수 있는 상품개발
 - 지역을 1차 타겟으로 설정 후 3~4가지 유형 상품/숙박 시설을 연계하여 타 지역 학교와 연계
 - ② 마을 단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행사 진행
- 예초 및 조정
 - 1안 : 청소, 소독 분야의 사업 영역 확장
 - 2안 : 자활사업단, 시니어 사업단 등 일자리지원을 받는 공공일자리형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진행
- 사업담당자
 - 박창순 대표(공공구매 제안 활동)

제4장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배경 및 목적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4개 지역(공주, 당진, 논산, 서산)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
- 충남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정리하여 시사점 도출

2) 진행 결과

	일자	지역	진행방식	참석자
1	2022.05.25.	논산	온라인 줌	하00, 김00, 오00, 이00
2	2022.05.25.	서산	온라인 줌	김00, 서산 네트워크 간사, 김00, 오00, 이00
3	2022.05.25.	공주	온라인 줌	김00, 소00, 김00, 오00, 이00
4	2022.05.26.	당진	온라인 줌	송00, 조00, 김유숙, 이경원
5	2022.09.01	서산	대면	김00, 이00
6	2022.09.07.	공주	대면	소00, 이00
7	2022.09.07.	당진	대면	박00, 이00
8	2022.09.28.	논산	온라인 줌	하00, 이00

2.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1) 공주

- 리더십과 인수인계 과정의 단절
 -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했던 리더들이 2기 운영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사업(연구)의 결과와 과정이 다음 연도까지 연결되지 못함
- 사업만 하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 차후 년도에 네트워크의 새로운 대표와 리더십 그룹이 형성되어 광역단위 사업, 기초단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자체의 조직 활동은 거의 없어 지고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직들만 결합하게되는 상황이 만들어짐
- 구성원의 세대교체 실감
 -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초창기에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이 많이 모여 창립이 되었음. 하지만 현재는 네트워크 성격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성격으로 바뀜. 이전 1세대처럼 사회적가치를 우선순위로 하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졌음. 또한 회원사들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1-2명이 일하기 때문에 상시 인력 부족에 처해 있음)

2) 당진

- 민관거버넌스 및 지방선거
 - 2021년도 당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시 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을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변화시켰던 경험을 했음
 - 시에서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안을 끊임 없이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현장에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해서 제안이 거절될 경우 네트워크 실무자가 동력이나 동기부여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네트워크 내부
 - 회원 증감 : 큰 변화가 없음. 조직 확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음
 - 협력구조 : 매월마다 진행되는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와 네트워크 대표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약간씩 역할 분담하여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음
 - 넷피아 등 외부 자원을 통해서 회원사들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과의 협력, 시민 이해도 향상
 - 중앙 및 광역 단위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 지역에서는 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분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운영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이 기업 운영에 바빠서 네트워크에 몰입하기 어려움
 - 네트워크에 신규 인물 발굴이 안되고 후세 양성도 안됨
 - 지원센터가 부재하니 지원센터 운영비용만큼 비용을 지원해주면 네트워크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예시: 인건비 보조)

3) 논산

(2)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분과의 원활한 역할 분담 및 정기모임 지속적 운영
 - 2021년도 워크숍을 통해 4개 분과 구성 → 현재 3개 분과 활동
 - 각 분과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조직 및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감있게 활동을 하고 있음
 - 워크숍 이전에는 하주현 대표 개인이 총무, 행정, 사업 진행을 모두 맡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
 - 정례적 모임도 6명(조직) 정도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 회원사들이 월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네트워크 학습 모임 시 '재미'라는 요소의 중요성
 -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가치나 이론 위주로 학습했는데 학습자들의 관심도나 참여율이 낮았음
 - 하반기에는 학습자들 입장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플리마켓 관련 교육을 했는데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호응이 높았음

-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네트워크)로 외연 확장
 -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로 바꾸면서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들어오게 되었음. 사회적기업만 있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도 더 활성화되었음

4) 서산

- 분과 및 월례회의 운영
 - 인원이 적게 나와도 매달 분과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나 아이템이 없는 환경, 문화예술 분과는 많이 흐지부지해졌음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회비는 35개 회원사 중에 7개만 회비 내고 있음(연회비, 인증사회적기업 70만원·나머지 30만 원으로 월 3만원 이하)
 - 회원사들이 월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2년에 한번씩 실무자를 바꾸려고 함. 그러나 집행부가 한꺼번에 바뀌면 연결지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함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력적 파트너십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3. 시사점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 필요
 -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질문이 ‘뭘 해줄 것인데’ 임. 다만,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익을 내기 어려움. 또한, 성과나 이익이 발생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적가치·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간 균형을 맞춰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도하고 회원사로부터 받기도 해야 함. 또한 장시간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외연확장을 위한 다양한 주체 참여 필요
 - 4개 지역 공통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그 이외의 유관단체들과도 결합할 경우 결사체와 사업체 균형을 맞추며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네트워크 정책 및 제도 개선
 -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소도시나에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 양상이 제각각임
 - 특히나 소도시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청년들이 주변 중소도시나 대도시로 이동을 많이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제5장 정책제언

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의지 강화 필요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

-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주체와 지방정책에서 사회적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방정부 해당 부서와의 협력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간의 정책 공동생산과 평가가 형식화되거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책임과 실현은 민간주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속적 거버넌스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간에 △심층적 의사소통과 신뢰형성 △공동의 목표 지속적 확인과 합의 △협력을 통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쪽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실행의지라고 할 수 있음
- 최소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 논의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간계획 및 예산수립과 그에 대한 성찰과 평가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외에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실무기관 정책협의회, 정기적 행정과 네트워크의 간담회 및 연찬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다양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정책협의 및 연찬회 등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들의 정책 파트너가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협의회 조직과 네트워크임을 인식시키고 △보조금 사업과 지원사업을 진행할 시 민간조직과 사전 논의를 거치고 협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을 요청함

2)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례의 의미와 역할은 막강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지역단위에서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조례 제·개정이 필수임. 민관의 협력 및 논의구조 또한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및 지원조례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라는 논의 구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 따라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등과 같이 ‘육성위원회’ 보다는 낮은 수위의 실무 논의 구조를 명문화시키고 최고 상위 논의기구인 ‘육성위원회’에서 각 논의기구에서 확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금보다는 민간 논의가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 의제별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논의 구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주적 경제공동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도 함.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외에 전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와의 논의 구조 외에도 해당 부서와 해당(업종 및 의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정기적 논의구조에서 민간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공공구매 계획수립에 대한 진행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함

4)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서비스 공공구매 계획 수립

-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지자체 공공구매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 해야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임
- 지방정부 공동구매 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구매할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종을 조사하면 다수의 기업이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해당부서와의 연계와 매칭이 중요함.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의제별 주제별 맞춤형 의제회의가 정착한다면 공공구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미스매칭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통해 품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구매에 참여할 경제조직을 모집하고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생산 총량을 조사하면 미스매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2.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1) 네트워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이 당사자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주(自主)와 자조(自助)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의 동기부여에서 시작되어야 함. 내부적으로 회원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가치와 의미가 잘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의미성에 대해 알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광역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핵심리더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자문과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초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에 상호 정보와 신뢰가 부족한 초기 네트워크 단계의 경우 당사자조직 내부에서 네트워크 결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초동 주체를 모집하고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방향과 원칙, 조직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려되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의 동력과 뿌리는 당사자 조직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 중간 지원 조직은 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뿐, 네트워크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조직 운영의 책임은 네트워크 회원들의 결정과 책임감 있는 물적·인적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원조직(광역 및 기초)은 네트워크에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인의날, 네트워크 파티, 상호거래 수요조사, 사회가치현황 조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조직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자원이 부족한 네트워크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

3)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협동사업의 개발과 지원

- 지난 3년동안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네트워크에 바라는 가장 큰 갈급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사회적가치를 확산 △회원사 간 상호구매와 상호거래의 활성화 △공동 유통 및 마케팅 △ 공공구매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 △자조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기초 및 광역 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회원사들에게 공통으로 협력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등을 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상호거래의 실적을 네트워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트워크 힘을 실어주는 방식 등을 들 수 있음

4)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업활동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함. 즉, '효율성과 교환'의 법칙 보다는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사회적경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각자가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슈와 제도개선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예산, 조례 등에 대해 네트워크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해야 하며, 업종별 이슈에 대해서는 각 해당하는 업체들의 사업분과, 사업네트워크, 업종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1) 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참여와 책임 강화

- 성장하는 수도권외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해 보면 네트워크 활동이 성장하고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외에 다양한 논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이사회는 네트워크 경영, 운영을 결정하는 성격을 띠게되고 실질적 사업 논의와 실행은 사업위원회 및 분과, 팀 등으로 세부화된 논의구조에서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 및 분과 등으로 논의 구조가 다양해 졌을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초기 세팅 과정에서 다수의 회원기업이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함

2)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정보공유와 신뢰 강화

- 회원사들이 네트워크를 찾고 필요성을 느끼며 협동할 수 있는 기반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업종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 간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식적 논의 구조의 공개도 매우 중요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활동의 대부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위원회(분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기구의 회의록과 활동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수의 회원들은 네트워크 논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음

3) 네트워크의 공공성·공익성 유지 및 확보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타 지역 사례를 분석했을 때(2020. 2021년도 결과보고서 참조) 성장하고 확대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네트워크가 강력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 회원조직들의 결사체인 '협의회' '네트워크' 등이 자주 겪게되는 오류는 회원사들의 이익과 편익만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이익단체화 되는 현상임.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참여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편익을 중심에 두는 경향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개별조직들은 사회적가치와 지역문제 해결의 의제를 주장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네트워크에는 실질적 사업을 확보하거나 판매가 잘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 따라서 네트워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내부적으로 가져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 등으로 확보하여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시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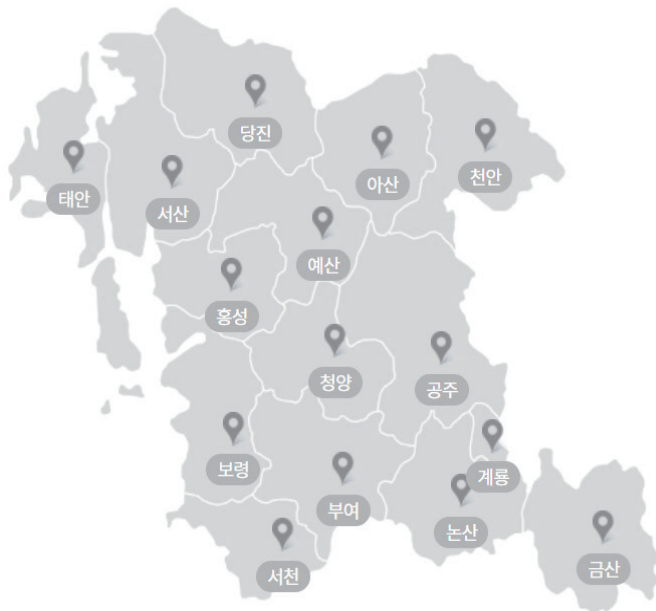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취지

1) 연구의 배경

-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와 매출,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행정 및 정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 (3차 사회적기업육성 5개년 계획)
 -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인프라가 천안, 아산, 청양 등 주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주체발굴과 대응도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외부적 평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¹⁾
 - 또한 지역 불균형, 고령화, 다문화 비율의 증가,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 이슈 등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대응전략이 적절하고 적극적인지에 대한 외부적 평가와 더불어 자성의 목소리가 현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음



중간지원조직	14
시군네트워크	15
사회적기업(예비)	277
마을기업(예비)	169
협동조합	970
자활기업	52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 3. 30 검색)〉

1)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8),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에 준함

<표 1-1> 충남도 시·군별 사회적경제 현황

발 전	중간지원 조직	시·군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예비)	협동조합	자활기업	총합계
천안시	3	1	59	8	181	7	259
공주시	1	1	20	23	75	4	124
보령시	1	0	11	12	46	3	73
아산시	3	2	50	14	132	3	204
서산시	1	1	23	14	67	3	109
논산시	1	1	18	14	58	4	96
계룡시	0	0	2	3	9	0	14
당진시	0	2	17	8	71	2	100
금산군	0	1	4	11	52	3	71
부여군	1	3	12	11	29	3	59
서천군	1	1	21	8	51	4	86
청양군	1	1	7	11	33	2	55
홍성군	0	1	14	14	56	5	90
예산군	0	0	14	8	58	5	85
태안군	1	0	5	10	52	3	71
총합계	18	16	217	155	809	47	1,262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 3. 30 검색)>

-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조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²⁾
-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기존 목표달성 중심의 성과모델보다 사회적자본인 외부 협력조직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지역사회를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자본(네트워크, 연결망, 신뢰 등)을 확보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에 주요함
 - 또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 및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자원의 연계적 협력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음

2) 사회투자지원재단 (2020),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수립'

- 따라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들에게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했을 때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의 의제와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또한 지역 의제 해결에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주체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확보했을 때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바르게 정착할 것임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1년에 실시한 사회적경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수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음(평균 2.88)
- 이에 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의제 개발과 중장기 전략 사업에 참여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천안시³⁾ 등 5개 지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외부적 지원과 네트워크 내부의 노력이 만났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1-2>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 수준

(단위 : %, 점)

구분	전혀없음	교류부족	보통	활발	매우활발	평균(점)	
전체	7.4	23.8	45.9	19.6	3.3	2.88	
기업소재지	천안시	0.7	13.6	53.1	30.6	2.0	3.20
	공주시	18.8	7.1	40.0	24.7	9.4	2.99
	보령시	14.6	33.3	47.9	4.2	-	2.42
	아산시	7.6	34.3	36.2	20.0	1.9	2.74
	서산시	-	29.1	39.2	31.6	-	3.03
	논산시	5.1	17.9	64.1	7.7	5.1	2.90
	계룡시	11.1	-	77.8	11.1	-	2.89
	당진시	1.3	16.0	61.3	18.7	2.7	3.05
	금산군	-	34.8	50.0	15.2	-	2.80
	부여군	14.3	45.7	28.6	2.9	8.6	2.46
	서천군	11.1	27.8	31.5	24.1	5.6	2.85
	청양군	6.3	18.8	62.5	12.5	-	2.81
	홍성군	-	30.4	44.6	25.0	-	2.95
	예산군	35.3	23.5	23.5	3.9	13.7	2.37
태안군	-	30.6	59.2	10.2	-	2.80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결과(202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천안시사회적경제연대는 2018~2019년에 사회투자지원재단과 함께 네트워크 설립과 중장기전략수립 연구 및 워크숍을 진행함

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 2020년, 2021년 사업의 경험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지역별로 네트워크의 수준과 과제는 각기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동일한 프로세스로 설계하기 보다는 지역 내 네트워크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각 지역별 연구 목표를 수립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제를 도출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공동으로
 - △ 선정된 지역의 현안과 정책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 △ 민간 네트워크의 비전과 중기핵심전략을 도출하며
 - △ 사회적경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역별 특화영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 △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중단기 전략을 구상- 더불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충청남도 4개 지역(당진, 공주, 서산, 논산)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활동이 2022년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2022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 : 청양, 서천
- 2020~2021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니터링 : 공주, 당진, 서산, 논산

(2) 시간적 범위

- 2022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 : 2022년도 기준
- 2020~2021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니터링 :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후~2022년 기준

2) 연구의 방법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 문헌조사

- 기존 문헌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보수집과 지역 현안 취합
- PEST(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석

(2) 지역 현안 분석 : 문헌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 지역의 현안사항 및 지역사회 핵심 문제(이슈)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업종별 현안 사항 조사 및 애로사항 분석

(3) 이해관계자 조사 : FGI, 인터뷰, 간담회

-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연대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의 핵심과제 및 전략에 대한 조사
- 지역의제별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한 예비 지역의제 취합 및 지역의제화 심층 논의
- 지원조직 및 관련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논의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욕구 파악

(4) 전략 및 비전수립을 위한 의제워크숍 : 액션 리서치 & 액션 러닝

- 액션 리서치(Action Research)의 적용
 - 액션 리서치는 현장실무자와 연구자가 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탐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연구방법으로 연구 과정을 통해 현장실무자들에게 배움과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구방법임
-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의 적용
 - 액션 러닝은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팀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득, 질문, 성찰 등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으로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각 지역의 의제별 워크숍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
 - 액션 러닝을 통해서 진행되는 지역의제별 워크숍 참여자들은 의제별 실행계획을 통해 실질적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제별 네트워크로 조직됨
- 의제 및 의제발굴 주요 과제 선정
 - : 지역자산기반지역사회개발(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 지역사회자산기반 지역사회개발(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밝혀내고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공동체 발전방식임
 - 지역의 강점은 물론이고 취약한 부문으로 인식되던 요인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동기 유발하는 것으로, 정부나 기업 등 외부의 지원보다 내부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의제 발굴을 통한 필요기반 지역사회개발과 자산기반 지역사회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 분석

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검토 자료는 아래와 같음
-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021.12.01. 관계부처 합동
 - 2017년~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 사례
-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 관계기관 합동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2022년도)
- 충남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2018년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2018-2022)
- (보도자료) 윤정부서 사회적경제 위축될까? 사회서비스-ESG 강화 속 확대가능성 기대, 이로운넷, 2022.03.11.

1)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¹⁾

-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적 기반 마련
 - 민간중심 거버넌스 구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지방 간 체계적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
-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 인재, 금융, 판로 혁신 분야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해 창업,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적가치 구현 노력 강화
 - 상생, 나눔, 연대, 협력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인식, 소통 등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가 가시화되고 확산되도록 지원

2) 2017~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 사례

(1)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및 성과	관련 지역 사례
(금융) 정책자금 공급, 인프라 조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활성화 → 지자체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 확대('16년 6개 → '21년 14개)	충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19.10.30)
(판로) 공공구매 확대와 민간 유통채널 이용 활성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약 1.9조원까지 확대 ('16년 0.81조원 → '20년 1.89조원) → 소셜벤더* 양성('19년~, 現 5개사), 유통지원센터 신설 ('18~, 現 8개소) * 소셜벤더 : 상품 발굴, 유통채널 입점 연계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 전문조직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충남따숨상사 & 따숨몰) -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 '20년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021.12.01. 관계부처 합동

정책 및 성과	관련 지역 사례
<p>(혁신) 지역별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R&D 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15개), 혁신타운(6개) 건립 및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등 3천여팀('17~'20 누적) 창업 지원 → 총 233개 과제 R&D·사업화 지원('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지역: 청양군 - 사업 기간: 2020년~2024년 - 총 사업비: 280억원(국비 140, 도비 84, 군비 56)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중점 지원 분야: 스마트유통, 전통웰빙식품, 언택트콘텐츠 * 사례) 충남사회적경제 연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스마트유통 활성화)

(2) 사회적가치 구현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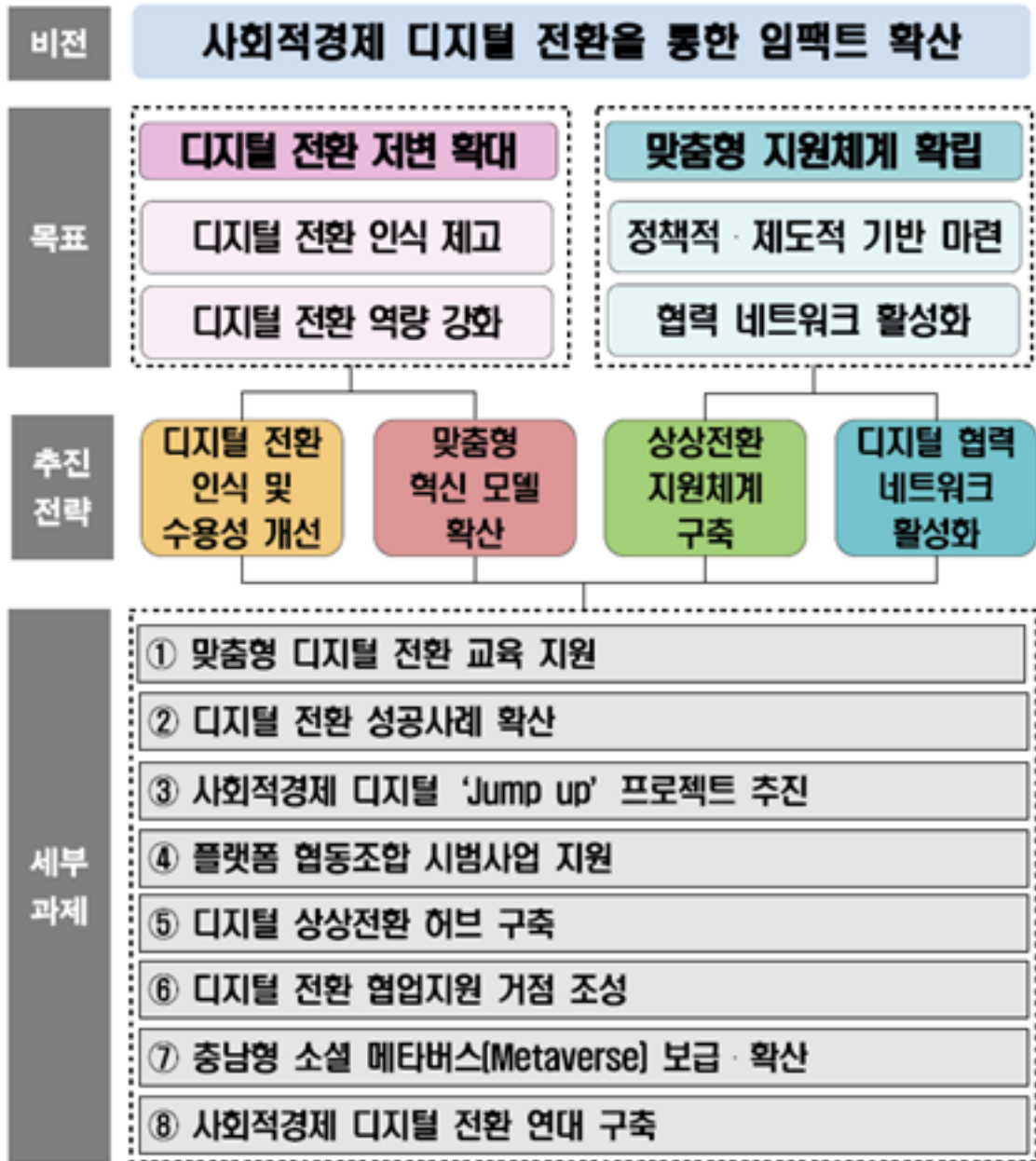
정책 및 성과	관련 지역 사례
<p>(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 돌봄·의료 등 복지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 지역공동체 회복 등 활동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천 한산 청년자립공동체: '삶기술학교' (운영기관: 자이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사업 선정 - 충청남도과 서천군의 지원을 받아 도시청년 60명이 한산지역에 정착 - 15개 팀이 창업을 하고, 20곳 이상의 빈집을 직접 재생함 - 마을에 방치된 옛 서장광여관을 대상으로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 : 소곡주 양조 전통산업과 융합시킨 '호텔한산' 만들 커뮤니티케어: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화양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의료와 복지를 통합지원하는 사업) 지역재생: 장항읍 성주지구(도시재생 인정사업), 장항읍, 한산면(도시재생 예비사업) 사회적농업: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안제인가든), 2021년 7월 개소(서천군 기산면)

(3)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선도 → 혁신적 기업 발굴·육성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적 역할 수행 (예: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지원, 업사이클링 사업모델 확산 등)

관련 지역 사례 ²⁾
<p>-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충남연구원, 20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식 및 수용성 개선 ②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혁신모델 확산 ③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상상전환 지원체계 구축 ④ 연대-호혜 기반의 디지털 전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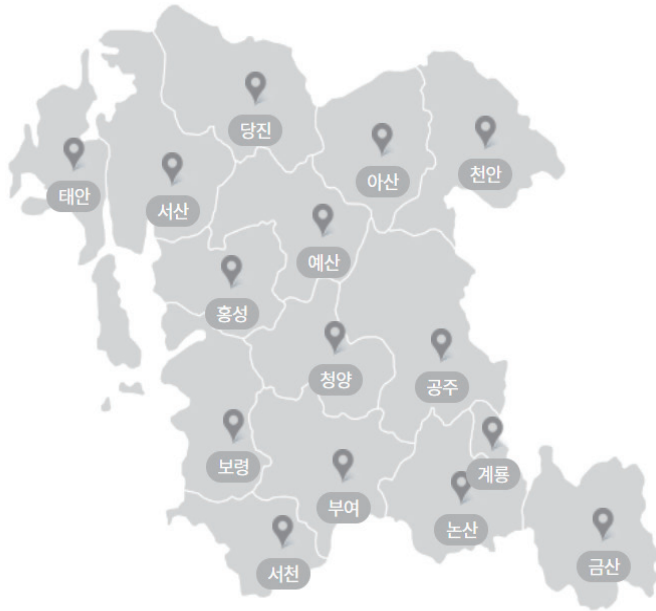
2)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략 촉진 방안 연구_이홍택, 홍은일, 2021.12.31., 충남연구원



<그림출처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충남연구원, 2021)>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1) 충남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충남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14
시군네트워크	15
사회적기업(예비)	277
마을기업(예비)	169
협동조합	970
자활기업	52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4.25. 기준>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2018-2022)

- 조직인재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보육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특화형 기업 발굴
 - 사회혁신형 인재양성
- 시장조성 및 판매촉진
 -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조성 및 확대
 - 공공구매 활성화 촉진
- 협력 시스템 구축
 - 충남형 협치체계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 충남형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 조직, 제도적 기반 구축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2022년도)

-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사업목적	특화된 분야의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으로 창업준비자의 원활한 사회적경제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업내용	<교육 및 컨설팅 운영> - (교육 프로그램) 6개월(주 2~3회) / 총 100시간(이론 50, 실습 50) - (시제품 생산 및 시연) 창업준비자 대상 시제품 시연회 개최
지원대상 및 규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준비자 또는 초기 기업> - (1명 기준) 교육(100시간, 컨설팅(3회), 시제품 제작(1백만원) 등 지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광역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업목적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교류 및 협업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력성장 기반강화
사업내용	- 지역·부문·업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적 공동사업 - 판로 개척, 공동브랜드 개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협업 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 발굴 및 육성 사업 -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융합 모델 발굴 * 단순 지역 업종 간 네트워크 구축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외
지원대상 및 규모	1개소, 3천만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업목적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을 위한 ① 맞춤형 공동사업 및 ②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7월) -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판로 개척, 인식제고 등
지원대상 및 규모	4개 시·군(공모선정 차등 지원) / 102백만원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목적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등 지속 성장 유도
사업내용	-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대상) 재정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규모) 시·군에 따라 다름(기업당 약 1천만원에서~2천만원)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지원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판로확보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 운영기관(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온라인 입점 및 판매에 적합한 상품기획, 패키지 구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매출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라인 특별할인 프로모션 - 쇼핑몰 판로확보 및 연계 상품 홍보 - 기획전 배너광고 및 쇼핑몰 고객대상 이메일 DM, 모바일 광고 -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규격, 패키지 등으로 구성 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소셜셀러 육성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비대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온라인 소셜셀러 육성(10여명) - 사회적경제의 이해, 온라인마케팅 및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교육 등 지원 - 소셜셀러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매칭·협력 지원, 유튜브 등 활용하여 홍보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제품)과 관련된 SNS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 등 지원 - 향후, 사회적경제제품 개인판매자 활동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연계 등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소셜셀러) 사회적경제 온라인 소셜셀러를 희망하는 도민 10명 내외 (기업) 온라인 소셜셀러와 협력하여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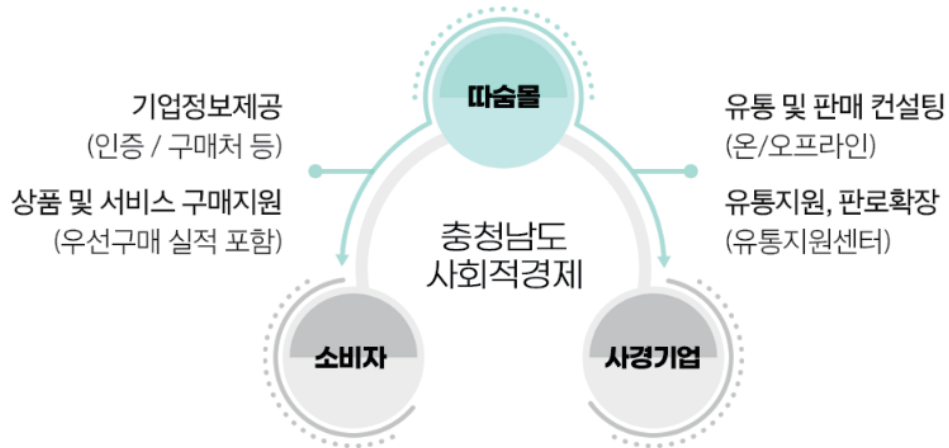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운용규모) 200억원(2020년~2024년, 신용대출 100, 담보대출 100)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2% 이내, 실금리 1%)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충남 사회적경제육성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도내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법인)

•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사업목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위치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 일원(청양여자정보고/폐교)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341㎡, 연면적 7,333㎡(1동, 지상4층) - 사업규모 : 280억원(국비 140, 도비 84, 군비 56)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입주, 창업육성,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지원, 교육, 홍보(전시·판매), 네트워킹 등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사업목적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과 마케팅을 컨설팅 및 지원
사업내용	<따숨몰(충남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쇼핑몰)> -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검색하고 정보 확인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쇼핑몰



<그림 출처 : 따숨몰홈페이지(<http://ddasum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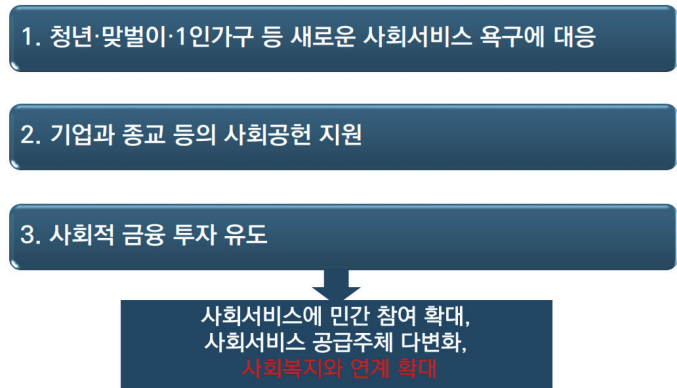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현황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016)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9)
 -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
 -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2020.4월)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2020.12.30.)
 - 충청남도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
-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2021.4.30.)
 -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3. 2022년~(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1) 국정과제³⁾

- 국정 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 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는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대선 공약⁴⁾

- 사회적경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은 없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정책'을 계승하는 대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시장경제와 조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순기능 장려입장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을 장려하겠다'고 답변함
- ESG(환경 Environmenta,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강화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강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ESG 지표 활용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제시

3) 출처 : 윤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밑그림 나왔다, 이로운넷, 2022.04.29.

4) 출처 : 윤정부서 사회적경제 위축될까? 사회서비스-ESG 강화속확대 가능성 기대, 이로운넷, 2022.03.1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제3장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수립

1. 일반 현황

- 서천군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검토 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 인구, 산업, 경제, 의료, 주거
- 안전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최종보고회 자료(2020.12)
 - 인구 현황
- 서천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 분야별 이슈(장애인, 교육, 문화, 보건, 아동, 청소년, 영유아, 보육, 돌봄, 저소득층, 노인)
- (보도자료) 서천군, 5만 인구 활력인구 정책에 총 2287억 집중 지원, 2022.01.28
- 2021충남사회지표 종합편, 시군편(2021)_충남도청
 - 의료, 주거

1) 지역 현황

(1) 인구⁵⁾

- 총인구
 - 5만 3천명(2020년 기준), 충청남도에서 3번째로 적음
- 평균연령
 - 53.8세 (충남에서 가장 높음)
- 지역별 인구
 - 서천읍(13,797명), 장항읍(11,311명) 순으로 높으며, 문산면(1,294명)의 인구가 가장 적음
- 인구 이슈
 -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임.
서천군 전체 인구 평균 감소율이 -1.9%인 반면, 청년 인구 평균 감소율은 -4.2%

(2) 산업⁶⁾

- 지역 내 총 생산
 - 충남의 1.7%를 차지하며, 충남 15개 시군 중 12위(2017년 기준)
- 산업 유형
 - 도매 및 소매업(27.9%), 숙박 및 음식점업(19.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1.9%) 순으로 나타남

5)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안전대책 5개년

6)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 종사자 수
 - 제조업(2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7%), 도매 및 소매업(11.7%) 순으로 나타남
- 주력 산업
 -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종합 고려 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이 주력 산업임

(3) 경제 7)



<그림출처 :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 고용 지표
 - 경제활동인구 평균 증감률 -1.5% 감소 추이 (코로나19 이후 고용지표 악화) 65세 미만 취업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나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증가 추이
- 소득소비
 - 충남 평균에 비해 저소득 비중이 높음
- 부채
 -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25.1%로 충남 전체에서 가장 낮으며, 주된 사유는 '사업/영농자금'이 41.2%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직장
 - 상용근로자 비중이 충남에서 4번째로 낮은 34.7%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불안정한 반면, 근로여건 전반적 만족 비율은 충남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4) 의료 8)

- 의료기관 현황
 - 서천읍과 장항읍에 집중
 - 서천읍 : 병·의원 21개소, 치과의원 7개소, 한의원 6개소
 - 장항읍 : 병·의원 5개소, 치과병원 3개소, 한의원 5개소
- 의료 이슈
 - 서천군 내 응급의료시설의 부재로 고령인구증가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자의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7)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8)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2021 충남사회지표

(5) 주거⁹⁾

- 주택보급
 - '19년 서천군 주택 수는 약 2만 6천호, 주택보급률은 11.9%로 도내 7위이며,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486호로 충남 평균(460.9호)보다 많은 수준임
- 주거환경 만족도
 - 거주 주택, 공공시설, 휴식공간, 주차장 만족도는 도 평균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쇼핑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2) 분야별 이슈

- 장애인
 - 장애인 주간보호실 확충 필요
 - 맞춤형 사례 관리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서 부족
 - 직업 재활시설의 운영 확대 필요
- 교육, 문화, 보건
 - 문화 체육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및 편의성 저하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부족
 -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치매상담 및 조기발견, 예방 및 후속처리에 대한 서비스 부재
 - 성·가족 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수요·공급의 격차 발생
- 아동, 청소년
 - 방학 중 돌봄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나 제공 서비스가 부재
 - 어린이집교사의 인력난으로 아동보육의 질 저하
 - 청소년 대상 문화여가 공간 및 서비스 부족
 - 위기청소년을 보호할 공간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대책 시급
- 영유아, 보육, 돌봄
 -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인프라 확충 필요(기산, 마산, 판교)
 - 보육시설 인력난 문제 증대
 - 일반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 부족
 - 여성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 대책 및 안전망확보 필요
 - 다문화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부족
- 저소득층
 - 저소득층 대상 자활 관련하여 취업 연계 시 마땅한 일자리의 연계 부족
 - 특히, 저소득 청년층 근로자의 완전한 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소득층 대상 주거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할 공공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
- 노인
 - 지역 내 노인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의 부족 현상 심화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대기자가 많은 상황
 - 노인일자리에 대한 단순화 현상 심화 및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함
 -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현상 증대

9)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2021 충남사회지표

3) 이슈 대응 (서천군 정책)¹⁰⁾

- 지역소멸 대응체계 구축
 - 전군민 소멸위기 공동대응
 - 기업체 임직원 전입 독려
- 인구정책 T/F팀 운영
 - 인구정책 보고회 추진
 - 인구정책 발굴 및 성과 관리
- 인구 활력 계획 추진
 - 지역소멸대응 기금 운용
 - 지역 특화 사업 발굴 추진
- 전입 정착지원금
 - 전입지원금 대폭 확대
 - 특화 정착지원금 신설
-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
 - 한산면 고품격 주택 29호 조성
 - 비인면 청년임대주택 입주 운영
- 청년활동 수당 지급
 - 청년 생애주기 활동수당 신설
 - 취업준비/근로복지/결혼축하/출산준비
- 청년주거 특별한시 지원
 -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구입 시 자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 청년네트워크 지원
 - 청년정책 논의 및 실행기반 역량강화 및 워크숍 지원
- 출생 및 돌봄 지원
 - 출산지원금 최대 3천만원
 - 돌봄 시설 및 지원 강화

10) 서천군, 5만 인구 활력 인구 정책에 총 2287억 집중 지원. 서천군 보도자료, 2022.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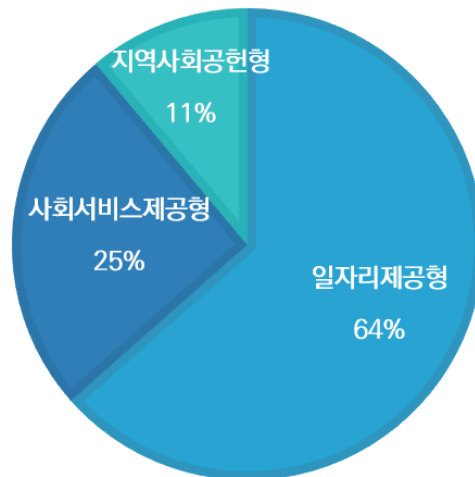
2. 서천군 사회적경제 현황¹¹⁾

1) 민간 현황

(1)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21.12.31. 기준)

- 조직별 현황
 - 인증사회적기업 : 10개
 - 예비사회적기업 : 11개
 - 협동조합 : 51개
 - 마을기업 : 9개
 - 주민기업 : 15개
 - 청년기업 : 8개
 - 전체 104개로 협동조합 비율이 약 49%로 가장 많음
 - 모시, 농산물 활용 기업이 많으며 주민기업과 청년기업이 있는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점으로 나타남
-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유형별 분류 : 일자리 제공형(8), 사회서비스제공형(1), 지역사회공헌형(1)
 - 업종별 분류 : 농산물가공(2), 청소(2), 제조(2), 농산물유통(1), 영농(1), 문화예술(1), 제조(1)
 - 증감추세 : 2015년 이전에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받은 곳이 10개 중 8개임
=>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가 아님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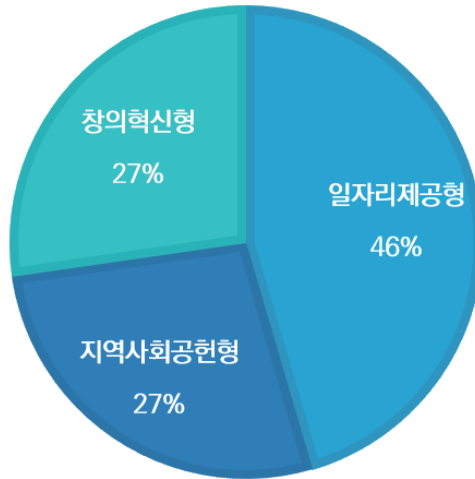
<그림출처 : 서천군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 지정 유형별 분류 : 부처형(2), 지역형(9)
 - 유형별 분류 : 일자리제공형(5), 지역사회공헌형(3), 창의혁신형(3)

1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자료(2021.12.31.),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홈페이지(2022.04.26.)

- 인증사회적기업이 일자리제공형 중심이었던 것과 대조하면 다른 유형이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특히 문화예술업종(4)이 전체 중 약 36%로 있는 것이 인증 사회적기업은 1개 있는 것과 대조적임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창의혁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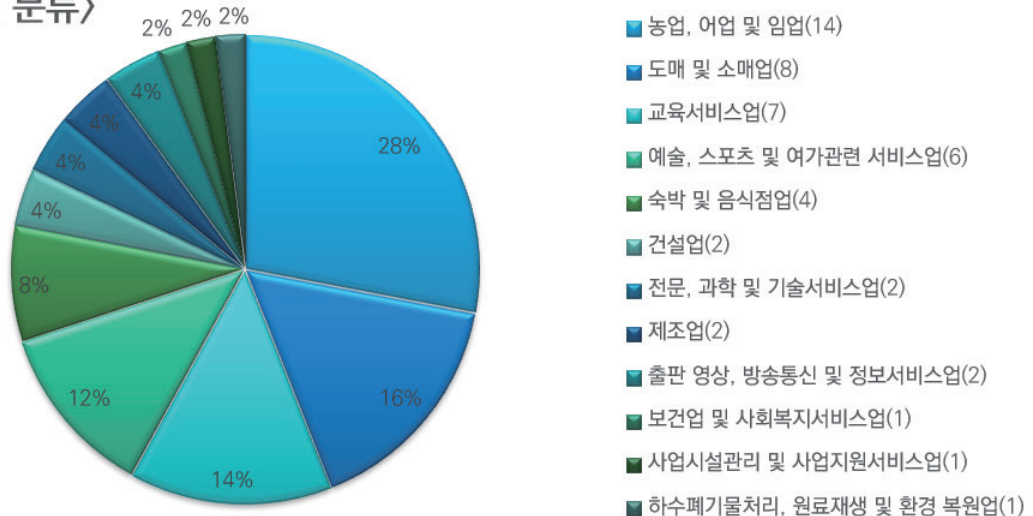


<그림출처 : 서천군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 협동조합 현황

- 일반협동조합(45), 사회적협동조합(6)
- 서천군 전체 산업 통계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이 주력 산업인 것에 비해서, '농업, 어업 및 임업(14개, 28%)'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임
- 이를 보아 서천군 내 '농업, 어업 및 임업' 중의 사업체에게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육서비스업(14%)'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이 전체 산업군 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점 또한 특징임
- 이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천군 내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에 알맞은 업종으로 문화예술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됨

<업종별 분류>



<그림출처 : 서천군 협동조합 현황>

(2) 서천 사회적경제기업 특징¹²⁾

- 사회적미션
 - 서천군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설립 목적(사회적미션)은 소비자의 합리적 경제적 소비촉진의 경우가 가장 많음(57.4%)
 - 이는 농산물 활용 기업이 가장 많은 것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많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서천군의 경우 사회적가치 창출의 주요 수혜대상은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음(72.2%)
 - 이는 앞서 가장 많은 사회적 목적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영향
 - 2022년 내에 폐업 또는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18.6%)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코로나19로 재정 악화 시 대처방안으로 생산 중단(75.9%)을 가장 많이 취하고 있음
- 매출 구조
 - 서천군의 경우, 2021년 매출 구조에서 B2G(정부와 거래)가 가장 높은 편(46.1%)로 나타남
 - 추가로 확대하길 희망하는 판로영역으로도 공공구매 비율이 가장 높으며(42.6%), 대형유통업체가 그 다음임(35.2%)
 - 또한 원재료 조달 및 용역 계약이 서천군 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90.7%)
 - 따라서 공공시장에 있어서 서천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제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방법
 - 서천군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슷하게 판매하고 있음(55.6%), 온라인 채널을 충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ESG 경영
 - 서천군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ESG를 잘 알고 있으나 현재 실천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81.5%)
 -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79.1%임
- 금융 지원
 - 서천군의 경우, 2022년도에는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한 대출 계획이 있는 비율이 42.6%로 충남 지역 내에서 높은 편(2번째)이고, 원하는 대출 규모는 3,000만원이 95.2%임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자금지원확대(48.1%)를 꼽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긴급 자금지원 관련한 의제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음

12) 출처 :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천군 사회적경제기업 54개가 응답한 결과이며,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16곳, 마을기업 7곳, 협동조합 31곳이 응답함

(3)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21.12.31. 기준)

- 네트워크 조직 현황
 -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하는 조직은 총 27개 업체로(2022년 4월 기준), 서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104개 중 약 25%가 참여하고 있음

〈표 :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황 분류〉

유형별 분류
• 인증 사회적기업 : 11개 • 예비사회적기업 : 9개(지정 종료 2개 포함) • 협동조합 : 4개 • 주민기업 : 1개 • 자활기업 : 1개 • 중간지원조직 : 1개

- 네트워크 주요사업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브랜딩 디자인 개선, 제품 고도화 지원), 판로개척(홍보 및 판매), 네트워크 협동, 사회공헌 활동이 있음
- 네트워크 교류 형태¹³⁾
 -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응답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당사자 간이 아니라 행정의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더 높게 나타남
 - 실제로 네트워크로 교류하는 수준이 중간지원조직과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수준¹⁴⁾
 -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수준은 보통(31.5%), 교류 부족(21.8%), 활발(24.1%)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업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또한, 네트워크 활동에 기대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40.7%), 상호거래 등 실질적 거래 관계를 통한 매출 증대(31.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네트워크 의제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 의제가 네트워크 당사자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한편, '당사자들의 의견결집을 통한 지자체와 효율적 협력 촉진'을 기대하는 비중이 1.9%로 당사자 네트워크가 활발한 천안, 아산, 당진과 같은 지역과 차이를 보임
 - 2021년 매출 구조에서 B2G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B2G를 개별단위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B2G에 대해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간다면 네트워크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네트워크 조직(분과) 육구¹⁵⁾
 -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조사 및 지역자원연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분과	육구
생산판매분과	지역기관연계(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서천가득몰 활용 및 활성화, 공용차량 활용,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 실적에 대한 조사
체 험 분 과	지역축제연계(한산모시문화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데이터 구축, 홍보
제조판매분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소통 활성화(사회적경제기업에서 서로 어떤 제품 판매하는지 파악하고 싶음), 회원사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경영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동대응(택배계약), 홍보

13) 출처 :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4) 출처 :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 출처 :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분과별 회의 자료(2022년도 4월)

2) 관(행정) 현황

(1) 사회적경제 정책

-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¹⁶⁾
 - 서천군은 2021년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으로 '청년 육성으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위한 청년·주민기업 육성'이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16명을 목표로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함. 주요 사업 내용으로 1개소당 2,000만원 범위 내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음
 - 위치럼 서천군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지역 이슈 대응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협업과 네트워크 지원
 -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예산 : 1억원)으로,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과 서천가득물 운영시스템 및 CS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2) 사회적경제 조례

조례명	서천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p>제4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p> <p>제6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p> <p>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제정일자	2017.02.28

조례명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p>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이 의무조항이나 실제로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함. (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인재육성, 주민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16) 2021년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조례명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p>제4조(협의회 구성) ①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순환경제활성화협의회¹⁷⁾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관광축제과장,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4. 지역순환경제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⑤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순환경제 업무팀장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16.7.14.></p> <p>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기관·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p>②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한다.</p> <p>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제17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정일자	2014.01.06

17) 지역순환경제활성화협의회 현황

- 구성인원 : 11명(당연직5, 위촉직6)

- 임 기 : 2021. 2. 1. ~ 2023. 1. 31.(2년)

- 기 능 :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운 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구매 현황¹⁸⁾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구매 현황
 - 전체 약 20억원 중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78.13%로 가장 많음

분 류	거래건수	거래액(총합)	비율
사회적기업	193	1,655,584,900	78.13%
예비사회적기업	50	334,713,200	15.80%
사회적협동조합	14	76,373,500	3.60%
마을기업	12	52,281,000	2.47%
합 계	269	2,118,952,600	100.00%

- 사회적기업 품목별 구매 금액
 - 청소 위생 관리 품목 비중이 70.67%로 가장 많음
 - 2~4 순위 품목은 대부분 서천 외부 지역에 있는 기업(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품목이 많았고, 내부기업에서 해당하는 품목은 대부분 3%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품목별 구매금액(2021년도)		
품 목	금 액	비 율
청소위생관리	1,170,012,190	70.67%
정부 사업 용역(공간조성, 디자인 개발 등)	118,206,000	7.14%
CCTV 설치 및 구입	84,470,000	5.10%
택배대금	57,973,500	3.50%
행사용역	49,200,000	2.97%
학교급식 식재료	46,073,360	2.78%
교육 용역	24,379,600	1.47%
방역물품(마스크 등)	24,144,500	1.46%
공연	20,000,000	1.21%
홍보, 기념품(양말, usb,파우치 등)	16,364,100	0.99%
모시 제품	10,270,000	0.62%
식물 구입	8,854,000	0.53%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송출 유지보수비	5,676,000	0.34%
사무용품(복사용지 등)	5,564,150	0.34%
청사 관리용 물품(화장지 등)	4,238,000	0.26%
시설 공사 자재(패널, 조명기구)	3,751,500	0.23%
기타 물품(소파, 선풍기 등)	2,565,000	0.15%
체험 프로그램 물품 구입	2,100,000	0.13%
교육 물품	1,518,000	0.09%
체험 프로그램	225,000	0.01%
총 합 계	1,655,584,900	100.00%

18) 2021년도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내역(서천군청 내부자료)

- 사회적기업 서천군 내부/외부 구입 비율
 - 사회적기업 구입 내역 중 서천군 내부 구입 비중이 81.05%이나, 대부분 청소위생관리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앞서 청소위생관리 품목 비중이 약 70%인 것을 감안하면, 청소위생관리 품목 이외 품목에서 이루어지는 서천군 내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비중은 약 10%로 추정됨

사회적기업 서천군 내부/외부 구입 비율(2021년도)		
서천군 내외부	금액	비율
내부	1,341,775,550	81.05%
외부	313,809,350	18.95%
총합계	1,655,584,900	100.00%

- 서천군청 부서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현황
 - 환경보호과, 관광축제과 : 청소 위생관리 용역 발주가 가장 많음
 - 자치행정과 : 정부사업 용역이라서 고정적인 부분이 아님
 - 문화진흥과 : 행사용역의 비중이 높음
 - 사회복지실 : 청소 위생관리용역과 택배대금(외부 기업 거래)가 주를 이룸
 - 안전총괄과 : CCTV 관련 구매로서 외부 기업 거래에 해당함
 - 농정과 : 학교 급식 식재료가 주를 이룸
 - 2~4 순위 품목은 대부분 서천 외부 지역에 있는 기업(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품목이 많았고, 내부기업에서 해당하는 품목은 대부분 3%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부서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공공 구매 비율(2021년도)		
부서	금액	비율
환경보호과	688,276,880	41.57%
관광축제과	490,999,160	29.66%
자치행정과	101,699,000	6.14%
문화진흥과	100,820,000	6.09%
사회복지실	87,971,600	5.31%
안전총괄과	84,470,000	5.10%
농정과	46,073,360	2.78%
지역경제과	19,213,100	1.16%
투자유치과	7,392,000	0.45%
한산면	6,835,500	0.41%
재무과	3,779,000	0.23%
해양수산과	3,751,500	0.23%
기획감사실	3,100,000	0.19%
마산면	3,069,900	0.19%
보건소	1,240,000	0.07%
시초면	1,172,000	0.07%
농업기술센터	1,065,000	0.06%
판교면	983,900	0.06%
장항읍	825,000	0.05%
종천면	776,000	0.05%
의회사무과	750,000	0.05%
비인면	517,000	0.03%
문산면	445,000	0.03%
도시건축과	360,000	0.02%
총합계	1,655,584,900	100.00%

- 예비사회적기업 품목별 공공구매 현황
 - 사회적기업과 달리 행사, 사업용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6개 거래 중 5개가 서천 외부 기업 거래에 해당함
 - 서천 예비사회적기업 업종 중 문화예술 분야가 약 44%를 차지하는 것과 연결됨

예비사회적기업 품목별 구매금액(2021년도)		
품목	금액	비율
행사용역	214,241,800	64.01%
정부사업 용역	73,628,200	22.00%
공연	17,000,000	5.08%
홍보, 기념품(양말, usb,파우치 등)	14,984,000	4.48%
체험 프로그램 물품 구입	5,187,000	1.55%
택배 대금	4,592,000	1.37%
학교급식 식재료	3,556,200	1.06%
교육 물품 구입	1,518,000	0.45%
기타 물품	6,000	0.00%
총합계	334,713,200	100.00%

- 예비사회적기업 내부/외부 구입 비율
 - 사회적기업이 내부 거래가 약 81%인 것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외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

예비사회적기업 서천군 내부/외부 구입 비율(2021년도)		
서천군 내외부	금액	비율
내부	78,742,200	23.53%
외부	255,971,000	76.47%
총합계	334,713,200	100.00%

- 서천군청 부서별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현황
 - 관광축제과 : 거래 개수는 4개로 행사용역이 가장 큰 금액임
 - 기획감사실 : 거래 개수는 5개로 행사, 정부 사업 용역이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 부서별 구매 비율(2021년도)		
부서	금액	비율
관광축제과	56,439,000	16.86%
기획감사실	61,065,000	18.24%
농업기술센터	735,000	0.22%
농정과	3,562,200	1.06%
도시건축과	18,400,000	5.50%
문화진흥과	171,751,000	51.31%
보건소	2,164,000	0.65%
사회복지실	4,592,000	1.37%
자치행정과	12,455,000	3.72%
체육사업소	3,000,000	0.90%
해양수산과	550,000	0.16%
총합계	334,713,200	100.00%

- 사회적협동조합 품목별 구매 현황
 - 구매금액의 75.91%가 정부양곡배송사업에 지출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 품목별 구매금액(2021년도)		
품목	금액	비율
정부사업 용역	18,400,000	24.09%
택배대금	57,973,500	75.91%
총합계	76,373,500	100.00%

- 사회적협동조합 내부/외부 구입 비율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서천군 외부 조직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이 100%인 것이 특징임

사회적협동조합 서천군 내부/외부 구입 비율(2021년도)		
서천군 내외부	금액	비율
외부	76,373,500	100%
내부	0	0%
총합계	76,373,500	100%

- 서천군청 부서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부서별 구매 비율(2021년도)		
부서	금액	비율
사회복지실	57,973,500	75.91%
도시건축과	18,400,000	24.09%
총합계	76,373,500	100.00%

- 마을기업 품목별 구매 현황
 - 마을기업은 체험프로그램 품목이 가장 많으나 전체 금액이 2천만원 정도로 거래금액이 크지 않음

마을기업 품목별 구매금액(2021년도)		
품목	금액	비율
공연	20,000,000	38.25%
기타 물품	566,500	1.08%
방역물품(마스크 등)	3,435,000	6.57%
사무용품(복사용지 등)	4,901,000	9.37%
체험프로그램	23,378,500	44.72%
총합계	52,281,000	100.00%

- 마을기업 내부/외부 구입 비율
 - 마을기업은 내부보다 외부기업에서 구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61.75%)

서천군 내외부	금액	비율
내부	20,000,000	38.25%
외부	32,281,000	61.75%
총합계	52,281,000	100.00%

- 서천군청 부서별 마을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현황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전총괄과의 경우 외부 기업과 거래한 체험프로그램이 해당함

부서	금액	비율
문화진흥과	20,000,000	38.25%
보건소	4,397,000	8.41%
안전총괄과	23,378,500	44.72%
지역경제과	3,435,000	6.57%
한산면	566,500	1.08%
화양면	504,000	0.96%
총합계	52,281,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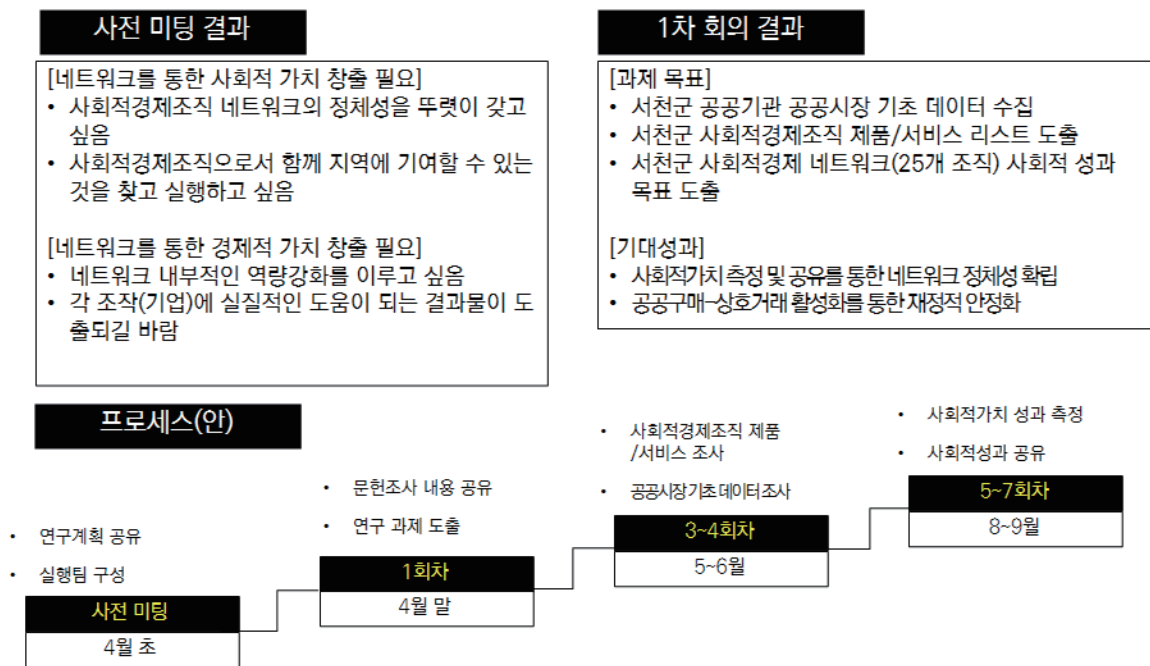
- 공공구매 현황 소결
 - 전체 공공구매 금액은 약 20억원이지만 청소 위생 관리 업종 및 외부기업과 거래하는 품목을 제외하면 약 10%인, 2억원 정도가 서천군 개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체감하는 공공구매 시장 규모로 추정됨
 - 따라서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중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영하는 조직을 30개(네트워크 회원사 중심)로 본다면 개별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공공구매 거래액은 매년 약 660만원으로 추정됨
 - 또한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조직들의 경우, 공공구매 품목 중 정기적이지 않은 ‘행사, 사업’ 용역이 많아서 매년 안정적으로 공공구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현황

1) 진행개요 및 참석자

(1) 과제 목표 및 전체 프로세스

〈서천군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및 공공시장 기초 조사〉



(2) 실행 주체

연번	조직명	이름
1	서천마산협동조합	박대수
2	(주)새날	강성구
3	농업회사법인 가온누리(유)	(김정훈)
4	서천표고버섯영농조합	박창순
5	모시촌협동조합	박종민
6	바다엔플러스협동조합	신경식
7	고수록식품	박근준
8	해미S&F영어조합법인	이창기
9	주식회사오르비스	이재훈
10	(재)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1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세민
연구진	사회투자지원재단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송현성

2) 회차별 진행 결과

회차	일자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1회차	22. 4/28(목)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박창순, 박근준, 이재훈,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서천군 문헌조사 내용 공유 - 네트워크 주요 과제 및 목표 논의
2회차	22. 5/12(목)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이재훈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구매 조사 계획 논의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계획 - 중간 공유회 준비
3회차	22. 6/29(수) 서천군 문헌서원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이재훈, 임은순, 이미숙, 박종우, 이창기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김현아 (충남사경) 강윤정 (서천군청) 강선기, 석준기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서천군청 공공구매 분석 결과 공유 - 서천군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 분석 결과 공유 - 서천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가치 기초조사 결과 공유
4회차	22. 7/28(목)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강성구, 박창순, 이명하, 이창기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 사회적가치조사 결과 공유 및 향후 진행과제 - 공공시장 분석결과 활용방안 논의 - 사회적경제 생산품, 서비스 조사 결과 공유 및 활용방안 논의
5회차	22. 8/8(월) 서천표고 버섯영농조합, 해미S&F영어조합법인	박창순, 이창기 (연구진) 김유숙	- 사회적가치측정 집중컨설팅 - 사회적가치 공통지표, 개별지표 도출
6회차	22. 8/19(금)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신경식, 이재훈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1차 결과물(안) - 사회적가치 선포 - 상호거래 약속 - 공공구매 제안 ·활용방안 및 역할분담
7회차	22.09.28(수)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교육실	박대수, 강성구, 박창순, 이창기, 이재훈 (지속가능지역재단) 송미옥 (충남사경) 강윤정,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송현성	·사회가치 조사 결과 - 지표 추가 논의 - 활용 및 확산 방안 논의 - 향후 필요 사항 논의 ·상호거래 제안 상품 리스트 - 활성화 아이디어 - 추진계획 ·공공구매 세부 분석 결과 - 예초 및 조경 부분 - 학교 급식 부분 - 체험 부분

3)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

(1) 주요 의제 및 과제

- 사회적경제 가치에 맞는 네트워크 정체성 확립 및 활동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고 싶음. 그래서 지역에서 행정에서도 네트워크를 바라보았을 때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길 바람
 -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함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람
- 네트워크 업종(분과)별 필요 파악 및 실행방안 도출
 - 네트워크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진행되길 바람
 -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조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람 (서류상 결과물이 아닌)
- 주요 과제
 -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구매 현황 조사
 -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서비스 조사
 -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 과제 목표
 -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시장 기초 데이터 수집
 -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서비스 리스트 도출
 -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25개 조직) 사회적 성과 목표 도출
- 기대 성과
 - 사회적가치 측정 및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정체성 확립
 - 공공구매·상호거래 활성화를 통한 재정적 안정화

(2) 과제 실행 계획

- 서천군 공공기관 공공구매 현황 조사 계획

준비가 필요한 사항	완료 시기	역할담당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서비스 품목 조사	6월15일	지속가능지역재단
2020~2021 서천군청 공공구매 현황 분석(품목 비교 등)	6월28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천군청 사업계획 및 예산 분석	6월28일	사회투자지원재단
공공구매 현황 및 시장조사 결과(1차) 공유회	6월28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군청 외 공공기관(5개) ¹⁹⁾ 사회공헌 관련 사업 및 예산 분석	8월 초	사회투자지원재단
공공시장 심화 분석(제품-서비스 연계가능성 탐색 등)	9월 초	향후 논의
공공시장 조사 후속 활동(공공구매 계획 제안서 제출 등)	9월 이후	향후 논의

- 추가 자료 조사 항목

- ① 국립생태원 공공구매 연계 시도 사례(충남사경센터)
- ② 따숨에서 조사한 충남 공공기관 데이터(충남사경센터)
- ③ 서천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가이드북(2020년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계획

준비가 필요한 사항	완료 시기	역할담당
사회가치 성과 지표 현황 조사지 초안 제작	5월 17일	사회투자지원재단
네트워크 회원사 중 프로젝트 참여기관 모집	5월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분과장)
사회적가치 성과 관리 현황조사 (미션, 경영공시, SVI 활용 정도 등)	6월 중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현황 및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측정 계획 수립 (측정 범위, 방식, 대상, 일정 등)	6월말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공동, 개별 지표 개발 및 측정 진행	8월 중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측정 결과 분석	8월 말	사회투자지원재단
결과 공유회 및 사회적가치 선포식 준비 (보도자료, 개별기업별 사회적가치선언문 작업, 네트워크 공통의 선언문정리 등)	9월초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2023 서천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선언 선포식	9월 이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19) 군청 외 공공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서천지사, 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 1개소

(3) 의제 실행 결과

(1) 사회적경제조직 사회가치 조사 결과

- 응답 수 : 12곳
- 참여기업 : (주)오르비스, 딸엔항기협동조합, 오석영농조합, 해미S&F영어조합법인, 바다엔플러스협동조합, 장항청년아이스크림협동조합, 모시촌협동조합, 주식회사 새날, 서천군포고버섯영농조합법인, 서천마산협동조합, 서천마산한산포시조합, 진통예술단 혼

2022년도 조직별 목표																	
조직 분류별 응답 수	사회적 가치 공통 지표	지역 소멸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의 질 향상	(주) 오르비스	딸엔항기협동조합	오석영농조합	해미 S&F 영어조합법인	바다엔플러스협동조합	장항청년아이스크림협동조합	모시촌협동조합	주식회사 새날	서천군 포고버섯영농조합법인	서천마산협동조합	서천마산한산포시조합	진통예술단 혼	합계
사회적 기업 (6)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서천군 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지역특산품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매출액)	1명	0명	2명	3명	3명	0명	0명	1명	3명	2명	1명	-	13명
예비 사회적 기업 (4)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 (기부금)	5,000만원	4,000만원	30,000만원	150,000만원	40,000만원	-	50,000만원	-	60,000만원	80,000만원	70,000만원	-	489,000만원
협동조합 (2)				장애훈련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200만원	50만원	70만원	1,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0원	100만원	444만원	270만원	3,336만원	-	6,070만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무적 목표 (2022년)				2,980만원	4,000만원	16,000만원	150,000만원	7,200만원	-	50,000만원	70,000만원	60,000만원	80,000만원	70,000만원	-	510,180만원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가치 기초조사 세부 결과

연번	분류	조직명/ 대표자	2022년도 사회적가치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무적 목표(2022년)
			지역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1	예비 사회적기업	(쥬오르비스 (이재훈))	공동 지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극복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서천군 주민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매출액)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장애인 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 (고용인원)/장애인 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 지역특산물(모시) 활용 시제품 개발	1명 1명 5천만원 200만원 1명 20개
			개별 지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여성 체험프로그램 제공 직원복지향상(자격증 취득 지원)	200만원 80만원 100만원
2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뜰연향기 협동조합 (최선화)	공동 지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극복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서천군 주민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매출액)/소극주, 모시, 지게미 등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경력단절여성 지역특산물 활용 시제품 개발	0명 0명 4,000만원 50만원 1명 1개
			개별 지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체험프로그램 제공	4,000만원 50만원 1명 1개 횡수 5회 인원 50명 100만원
3	사회적기업	오석영농조합 (유요안)	공동 지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극복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서천군 주민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매출액)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고령자	0명 7명 3억원 70만원 5명
			개별 지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직원 복지 향상	천연비누, 체험프로그램 등 쌀 가공품 등 1억 6천만원

연번	분류	조직명/대표자	2022년도 사회적가치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무적 목표(2022년)	
			공동 지표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4	사회적기업	해미S&F 영어조합법인 (이창기)	공동 지표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1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5	협동조합 (신경식)	바다애플러스 협동조합 (신경식)	공동 지표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7,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6	협동조합 (유홍석)	장항정년 아이스 브레이크 협동조합 (유홍석)	개별 지표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미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연번	분류	조직명/대표자	2022년도 사회적가치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무적 목표(2022년)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매출액)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지역 특산품 (모시떡, 꽃게, 박대외 기타 농수산물 등)	0명	5억원
7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모시촌 협동조합 (이명하)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서천군 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0명	지역 특산품 (모시떡, 꽃게, 박대외 기타 농수산물 등)	5억원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매출액)	0명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0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0명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판로확대 (지역생산농가 판로지원 및 마케팅 교육)	5개 품목			
					청년 대상 온라인 판매방안 및 활성화 방안 컨설팅	-			
			지역소멸극복	지역소멸극복	지역농가 소득증대	22년 13개 농가			
					지역소멸극복	지역농가 규모			1명
			공통 지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15명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100만원
개별 지표	삶의 질 향상	주식회사 새날 (강성구)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80% 고령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13명					
			자원봉사 인원 및 시간 직원복지향상	- -					

연번	분류	조직명/대표자	2022년도 사회적가치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무적 목표(2022년)		
			지역소멸극복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서천군 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지역특산품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매출액)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결혼이민자3 고령자1	표고버섯 (100톤)
9	예비 사회적기업	서천군 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 (박창순)	지역소멸극복	3명	4명	6억원	444만원	표고버섯 (100톤)	60,000 만원
				지역경제활성화	10%	(시장 15%, 영농조합 5%)			
			삶의 질 향상	시장 유통 대비 25% 향상	지역 농산물 매입규모 및 매입율	100톤/70%			
				지역농가 소득증대	서천지역 농민 소득 증대 금액	66백만원 * 6개 농가			
			삶의 질 향상	지역농가 소득증대	지역 농가 확대 규모	20년 6개 21년 10개 22년 14개			
				삶의 질 향상	직원복지향상	400만원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증대	지역농가 확대 규모	20년 6개 21년 10개 22년 14개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증대	지역농가 확대 규모	20년 6개 21년 10개 22년 14개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증대	지역농가 확대 규모	20년 6개 21년 10개 22년 14개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증대	지역농가 확대 규모	20년 6개 21년 10개 22년 14개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증대	지역농가 확대 규모	20년 6개 21년 10개 22년 14개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증대	지역농가 확대 규모	20년 6개 21년 10개 22년 14개						

연번	분류	조직명/대표자	2022년도 사회적가치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무적 목표(2022년)		
10	사회적기업	서천마산 협동조합 (박대수)	지역소멸극복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 인원)	2명	지역농특산물 8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서천군 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7명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매출액)		8억원	
			삶의 질 향상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270만원 (유정란 포함)		지역농특산물 8억원	
				지역소멸 극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 장애인 2명, 노인1			2명
					지역농가 소득 증대			지역사회공동체활성화(체험프로그램제공)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 증대				시장보다 낮은 마진율
					농가소득향상 비율			10~15%
				삶의 질 향상	서천지역 농민 소득 증대 금액			2천만원
					지역농가 확대 규모			19년:100농가 20년:150농가 21년:200농가
					직원복지향상/야유회			500만원
			개별 지표	지역농가 소득 증대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제공/장애인			2건횟수 20인원 70만원

연번	분류	조직명/ 대표자	2022년도 사회적가치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재무적 목표(2022년)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11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임은순)	공동 지표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서천군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서천군 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매출액) 이웃돕기 물품 및 기부금 후원(기부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고용자 현대화 모시제품 개발	1명 6명 7억원 3,336만원 5명	모시제품 판매 7억원
			개별 지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증가: 모시가져다가 태모시로 만드는 20개 농가 태모시가져다가 군모시(2차 가공)로 만들어오는 주민 100명	- 1농가당 30~300만원 1명당평균 60만원 소득 향상	
12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혼	개별 지표	지역소멸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차세대 예술인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콘텐츠 개발 및 공연	5명 3편	-

- 지표 추가 아이디어
 - 공동지표에 '직원복지 향상', '자원봉사'와 같이 향후 서천네트워크에서 공통으로 추구할 사회적가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네트워크 분과별(업종별) 공통 지표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활용 방안
 - 각 조직 및 네트워크 차원에서 사회적가치 창출 독려
 - * 예시) 총회(서천 사회적경제인의 밤) 때 사회적가치 창출 약속 -> 이후 정기적 확인, 우수 달성 조직의 경우 시상
 - 대외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
 - 매년 5월 사업보고서 제출 전 점검수단으로 활용(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해당)
- 확산 방안
 - 네트워크 행사 때 우수 기업 시상
 - 네트워크 회원사 가입 신청서 양식에 포함
 -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피 문구와 함께 전달하면 더 좋을 것
- 필요 사항
 - 네트워크 사업(활동)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사회적가치조사, 상호거래 등 네트워크 사업이 가능할 것

(2) 상호거래 제안 상품 리스트

서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거래 제안 상품

※ 작성일자 : 2022년 09월 28일

이번 상호거래 촉진 활동은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사 간 신뢰 구축 및 상생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네트워크 회원사 및 종사자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호거래 활동에 대한 문의〉
서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1. 제안 상품 전체 목록


※ 상품 상세정보는 해당 물품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번	업체명	상품명
1	서천마산협동조합	자연양계유정란
2	서천군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생표고버섯, 건표고버섯, 표고버섯 배지키트
3	해미S&F영어조합	전장김, 도시락김, 김자반
4	(주)오르비스	모시네크리스, 모시링, 모시마스크스트랩
5	(사)한산모시조합	모시양말, 모시손수건, 모시브로치, 필모시
6	오석영농조합	현미수제누룽지, 흑미수제누룽지
7	뜰엔향기협동조합	모시비누, 동백비누, 지게미 비누 등
8	아이맘협동조합	생들기름, 아로니아식초
9	(주)새날	청소, 소독

2. 제안 상품 상세 안내

업체명	서천마산협동조합		
상품명	자연양계유정란		
상품 사진			
판매 단위	10구 / 선물세트	가격 (원)	6,000 / 18,000
상품 설명	동물복지농장의 자연 양계 방식을 모듈화하여 지역의 소농들과 함께 NON-GMO 사료로 배합한 자기사료를 먹이며 자연 양계 환경에서 튼튼하게 키워 낸 유정란입니다.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10구 1,000원 할인/ 선물세트 3,000원 할인		

제3장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수립

업체명	서천군 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		
상품명	생표고버섯, 건표고버섯, 표고버섯 배지키트		
상품 사진			
판매 단위	생표고버섯 1.5kg(특상)	가격 (원)	30,000
	생표고버섯 1.5kg(상품)		20,000
	생표고버섯 1.5kg(중품)		15,000
	생표고버섯 1.5kg(못난이)		10,000
	건표고버섯 300g		30,000
	표고버섯 배지키트1.5g(2개)		10,000
상품 설명	<p>서천군표고버섯 영농조합은 서해바다를 끼고 있으며 넓은 평야지대의 청정지역 충남 서천군에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표고버섯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서천군 농장에서 직접재배하여 싱싱한 상태로 산지직송 보내드립니다. 건표고버섯은 대부분 햇빛을 이용하여 말리고 있습니다</p>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p>-생표고 전체 : 30%할인 -건표고 : 27천원 -배지키트 : 8천원</p>		

업체명	해미S&F영어조합법인		
상품명	해올담 소문난 전장김 / 도시락김 / 김자반 / 김가루		
상품 사진			
판매 단위	20g(5매)x10봉 (전장)	가격 (원)	13,000
	4gx24봉 (도시락)		12,000
	50gx8봉 (김자반)		24,000
	1kg*4봉 (김가루)		44,000
상품 설명	<p>해올담 소문난 서천김은 최상급 청정 재래김을 사용하여 정성껏 구워내어 김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려,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p>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p>전장 - 10,000원 도시락 - 10,000원 김자반 - 20,000원 김가루 - 42,000원(4봉) / (1봉당-11,000원)</p>		

업체명	주식회사 오르비스		
상품명	모시네크리스, 모시링, 모시마스크스트랩		
상품 사진			
판매 단위	43cm (모시네크리스 : 은,모시)	가격 (원)	40,000
상품 설명	<p>한산모시 제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반영구적인 주얼리로 제작, 특수처리를 통해 수분, 오염 등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였고, 인체 친화력이 있는 금속인 실버 925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최소화</p>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20% 할인		

업체명	(사)한산모시조합		
상품명	현대화모시제품(모시양말, 모시팬티, 모시덧신, 모시이블), 모시손수건, 모시브로치, 필모시		
상품 사진			
판매 단위	모시양말(개)	가격 (원)	5,000
	모시팬티(개)		15,000
	모시덧신(4개)		10,000
	모시이블(퀸사이즈)		160,000
	모시손수건(개)		30,000
	모시브로치(개)		8,000~
	필모시(개)		800,000~
상품 설명	한산모시현대화제품은 한산모시를 분섬하여 모시 20%를 첨가한 혼방제품으로 흡수성, 통풍성, 향균성이 뛰어나며, 모시소품(악세서리)는 한산모시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생활소품 및 패션소품 제품입니다.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10% 할인		

제3장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수립

업체명	오석영농조합		
상품명	현미수제누룽지, 현미&흑미 수제누룽지, 현미랑흑미랑 수제누룽지		
상품 사진	현미수제누룽지	현미&흑미 수제누룽지	현미랑흑미랑 수제누룽지
			
판매 단위	현미수제누룽지(440g)	가격 (원)	10,000 (10/1부터인상12,000)
	현미&흑미 수제누룽지(440g)		10,000 (10/1부터인상12,000)
	현미랑흑미랑 수제누룽지(440g)		10,000 (10/1부터인상12,000)
상품 설명	서천지역에서 생산된 현미쌀을 HACCP인증 시설에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직접 밥을 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소비자가에서 10% 할인		

업체명	뜰엔향기협동조합		
상품명	모시비누, 동백비누, 지게미 비누 등		
상품 사진			
판매 단위	뜰엔모시비누(100g)	가격 (원)	5,000
	뜰엔동백비누(100g)		5,000
	뜰엔술지게미비누(100g)		5,000
	고운모시비누(100g)		10,000
	고운동백비누(100g)		10,000
	고운술지게미비누(100g)		10,000
	바른모시비누(100g)		10,000
	바른동백비누(100g)		10,000
	바른술지게미비누(100g)		10,000
상품 설명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모여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천연제품 피부 탄력, 미백, 보습효과가 탁월한 서천지역 모시, 동백, 술지게미를 활용한 천연수제비누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10개 이상 구입시 10% 할인 30개이상 구입시 15% 할인 50개이상 구입시 20%할인 100개이상 구입시 30%할인		

업체명	아이맘협동조합		
상품명	생들기름, 아로니아식초		
상품 사진			
판매 단위	생들기름(300ml)	가격 (원)	30,000
	아로니아식초(250ml)		22,000
상품 설명	<p>고소한 저온압착 들기름 3년 이상 숙성한 천연발표식초</p>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회원사 5% 할인혜택		

업체명	(주) 새날		
상품명	청소, 소독		
상품 사진			
판매 단위	청소	가격 (원)	상담 후 협의
	소독		상담 후 협의
상품 설명	건물 위생 관리(건물 청소 용역) 소독-방역(개인, 공공기관)		
네트워크 회원사 혜택	- 청소 : 10% - 소독 : 20%		

- 상호거래 활성화 아이디어
 - 상호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네트워크 기금으로 축적
 - 네트워크 행사 때 상호거래 약속 행사 진행
 - 네트워크 가입신청서에 포함
 - 네트워크 정관에 상호거래 활성화 내용 포함 (예시 : 1년에 100만원 상호거래해야 함)
- 추진 계획
 - ① 상호거래 구매 희망 조사 (22년 10월-11월)
 - 담당 : 박대수 대표
 - ② 네트워크 행사 때 상호거래 의미와 성과 공유(상호거래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의미 있는 상호거래 성과가 나올시 → 정관 개정을 통해 상호거래 의무 조항 반영 (23년 2월)
 - 미약한 상호거래 성과가 나올시 → 각 기업별 매출액의 0.5% 상호거래 권고 혹은 의무조항 반영
- 추가 아이디어
 - 상호거래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나눔/기부를 서로에게 하는 것도 좋을 것
 - 연말 네트워크 행사 때 시상상품으로서 네트워크 참여기업 후원 물품 활용

(3) 공공영역 사업 아이템 제안

- 먹을거리 판매와 유통
 - ①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납품 : 먹거리 1차 생산품 및 가공품에 대한 수급 및 공급 분석
 → 공공기관 급식 및 사회복지시설 식당(무료급식) 등에 납품 조율
 - ② 학교급식 전략적 접근 상품 개발 : 학교급식 납품하는 기존 조직 중심으로 TF 구성
 → 공급 품목, 공급 및 수급시기 정리 → 급식센터 및 개별 학교 MOU

구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천원)	부서	정책/단위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식당 납품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35,000	사회복지실	재가노인복지증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사업보조	208,28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8,640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학교급식 전략적 접근을 위한 상품 개발	(초)급식재료	급식재료구입	49,932	서천초등학교	학교급식 운영/먹거리, 친환경
	(유)급식재료	급식재료구입	11,874		
	급식재료	급식재료구입	40,570	장항중앙초등학교	학교급식 운영/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재료비	2,281,309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 문화·예술·체험 기반한 지역 관광 및 투어
 - ① 생태, 체험 기반 관광 투어 상품 개발
 - 생산기반 사회적경제조직과 체험, 제조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상품을 패키지와
 - 특히 각 학교의 농촌체험, 현장체험, 교과연계체험학습을 공략할 수 있는 상품개발
 - 지역을 1차 타겟으로 설정 후 3~4가지 유형상품/숙박시설을 연계하여 타 지역 학교와 연계
 - ② 마을단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행사 진행

구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천원)	부서	정책/단위	
생태, 체험 기반 관광상품 개발 (숙박형 투어 프로그램)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관광축제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0,000	관광축제과	생태지역의 현명한 이용 생태녹색관광 육성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 및 팸투어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농촌체험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	사무관리비	30,600	관광축제과	농촌체험형 충남특화 관광상품 개발사업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현장체험학습	학생복지비	1,200	서천초등학교	수련활동 문화체험	
	농촌체험학습	교육운영비	38,200			
	교과연계체험학습	교육운영비	13,000			
	마을단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재비	사무관리비	19,000	자치행정과	미래인재육성재정지원
		마을학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사무관리비	35,000		
		마을교육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10,000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사업 운영(보조)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00		
농어촌복합시설 요가교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	체육사업소	생활체육교실운영	
찾아가는 환경에너지 창작인형극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0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사업	
놀이중심교육과정, 마을교육공동체운영		일반 수용비	81,600	교육지원청	특색교육과정 운영	
손장대여름문화예술 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0	관광축제과	문화주도형 지역축제	
한산모시 문화제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50,000			
한산모시문화제 운영비		행사운영비	290,000			
지역 축제 접목할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한산모시문화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관광축제과	문화관광축제지원 (한산모시문화제추진)	
	한산모시문화제 읍면 참여형 부스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19,500			
	농촌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0			농정과

- 예초 및 조정
 - 1안 : 청소, 소독 분야의 사업 영역 확장
 - 2안 : 지활사업단, 시니어 사업단 등 일자리지원을 받는 공공일자리형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진행

구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천원)	부서	정책/단위
예초 및 조정	청사 조정수 전지 및 예초	사무관리비	4,800	재무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공원내 조경관리	시설비	4,000	체육사업소	국민체육센터관리
	국공장 잔디관리	시설비	5,000		국민체육센터관리
	서천야구장 잔디관리	시설비	8,000	공공체육시설관리	
	생활권역 당굴제거 사업	시설비	10,000	조립사업 지원	조립사업 지원
	생활권역 대나무 제거사업	시설비	40,000		조립사업 지원
	미세먼지저감조립	민간위탁사업비(수의계약 및 임차)	22,000	산림축산과	조립(미세먼지저감)
	조립지 사후관리(플베기 등)	민간위탁사업비(임차)	173,574		조립(지역특화)
	보호수정비	시설비(임차)	59,465		보호수 정비지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사업비(임차)	1,245,652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사업(분기별 임차)	2,16,960	귀농지원센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향토숲관리	시설비	10,000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향토숲 관리)
	귀농지원센터 (전지,예초) 관리 소규모 용역	사무관리비	5,000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
	스카이워크 일원 제초작업	사무관리비(수의계약형 임차)	9,600		장항스카이워크관리
	봄의마을 광장 수목 및 화단 제초	시설비	1,500	공공시설사업소	봄의마을관리비
	소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임차)	49,465		도시숲조성
	승림숲 맥문동 군락지 관리사업	시설비(임차)	80,000	도시숲조성	
	장항국가산단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임차)	198,570	국가 산단 공원,녹지 유지관리	

• 공공영역 사업 아이템 논의 사항

① 예초 및 조경 부분

- 사업 추진 검토 : 박창순 대표
- 향후 과제 : 예초가 활발하지 않은 동절기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② 학교 급식 부분

- 영양사 실무자의 참여의지가 있어야 가능함
- 서천 사회적경제조직의 약 40%가 1차 산물(농·임·수산물)을 생산하므로 학교 급식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 1차 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상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함

③ 체험 부분

- 체험분과(이재훈 대표)에서 프로그램 개발 검토
- 인성, 직업체험 등을 결합하여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 농업기술센터 체험농장 15곳이 교육청과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추진 방안일 것
- 교육과정 분석, 장학사 연계 등 필요
- 노인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좋을 것(유사사례 : 전남)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제4장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진행 개요

1) 모니터링 배경 및 목적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4개 지역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했고 2022년 현재 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이에 따라 사업 이후의 경과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현장에서 타지역 사례 파악에 대한 수요가 높음(서산, 서천, 청양). 충남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논의해볼 주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함

2) 모니터링 진행 개요

	일자	지역	진행방식	참석자
1	2022.05.25.	논산	온라인 줌	하00, 김00, 오00, 이00
2	2022.05.25.	서산	온라인 줌	김00, 서산 네트워크 간사, 김00, 오00, 이00
3	2022.05.25.	공주	온라인 줌	김00, 소00, 김00, 오00, 이00
4	2022.05.26.	당진	온라인 줌	송00, 조00, 김유숙, 이경원
5	2022.09.01	서산	대면	김00, 이00
6	2022.09.07.	공주	대면	소00, 이00
7	2022.09.07.	당진	대면	박00, 이00
8	2022.09.28.	논산	온라인 줌	하00, 이00

- 1차 모니터링에서는 네트워크 사업 이후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음. 2차 모니터링에서는 네트워크 사업과 별도로 네트워크 운영의 어려움,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과의 역할분담, 네트워크 지원사업 및 교육에 대한 아쉬움, 정책·제도·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음. 5장 2절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했고 3절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네트워크 사업의 참고점과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등)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음

2. 지역별 사업 진행 개요

1)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공주

(1)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그림>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략체계도

- 2021년까지 2년간 미운영 상태에서 정기회의 및 행사 등 네트워크 기능 정상화
- 2020년 이후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 및 의지가 있는 신입 대표 및 이사진 선출
- 사회적경제 홍보 행사, 네트워크 회원사 간 동료 멘토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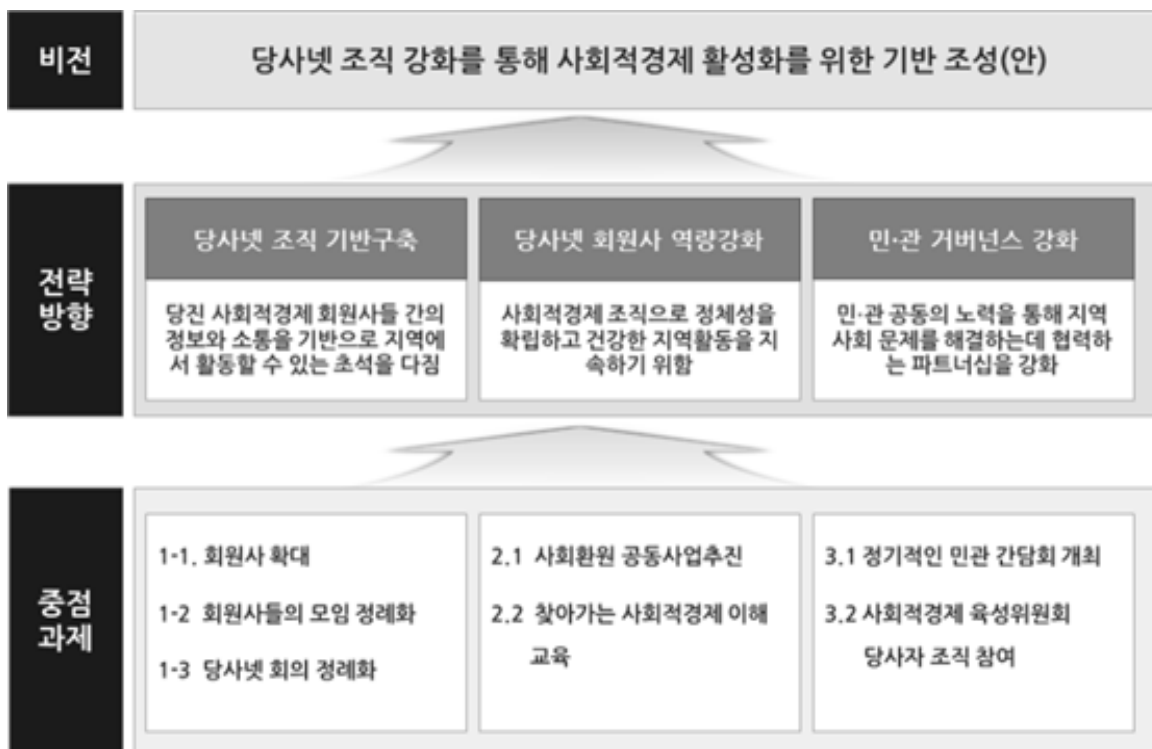
(2)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리더십과 인수인계 과정의 오류
 -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했던 1.5세대 리더들이 2기 운영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서 연구진행과정의 결과와 과정이 정확하게 인수인계되지 않음
 - 또한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이 상대적으로 신진조직(협동조합)의 젊은 리더들로 구성되면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최근에는 2기 임원들(특히 대표)가 다양한 활동과 사업으로 소진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함

- 사업만 하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 새로운 대표와 리더십이 형성되고 광역단위 사업, 기초단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보해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자체의 조직 활동은 거의 없어지고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직들만 결합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짐
 - 선배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고,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러한 상태를 만들게 된 것으로 보임
 - 네트워크 구성원의 세대교체로 사업이 없는 경우 모이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 사업을 하되 조직의 활동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멘토링, 맨투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구성원의 세대교체 실감
 -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초창기에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이 많이 모여 창립 되었음. 하지만 현재는 네트워크 성격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성격으로 바뀜. 이전 1세대처럼 사회적가치를 우선 순위로 하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모이기 힘들어졌음. 또한 회원사들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1-2명이 일하기 때문에 상시 인력부족에 처해있음)
 - 현재 이러한 구성원 교체상태에서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함. 각 직군별 협의회(마을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자활기업협의회)를 강화하거나 사회적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업들(개인이나 소상공인연합회도 포함)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재조직화해야 함. 무엇보다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 모여야 조직의 지속성을 기대해볼 수 있음

2)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당진

(1) 당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그림> 당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략체계도

- 당사자 간 친목 위주의 네트워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당진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당사자 조직의 참여
- 네트워크 내 회원간 소통에 대한 역량 강화
- 네트워크 임원 중심의 사업 진행에서 네트워크 회원별로 사업을 나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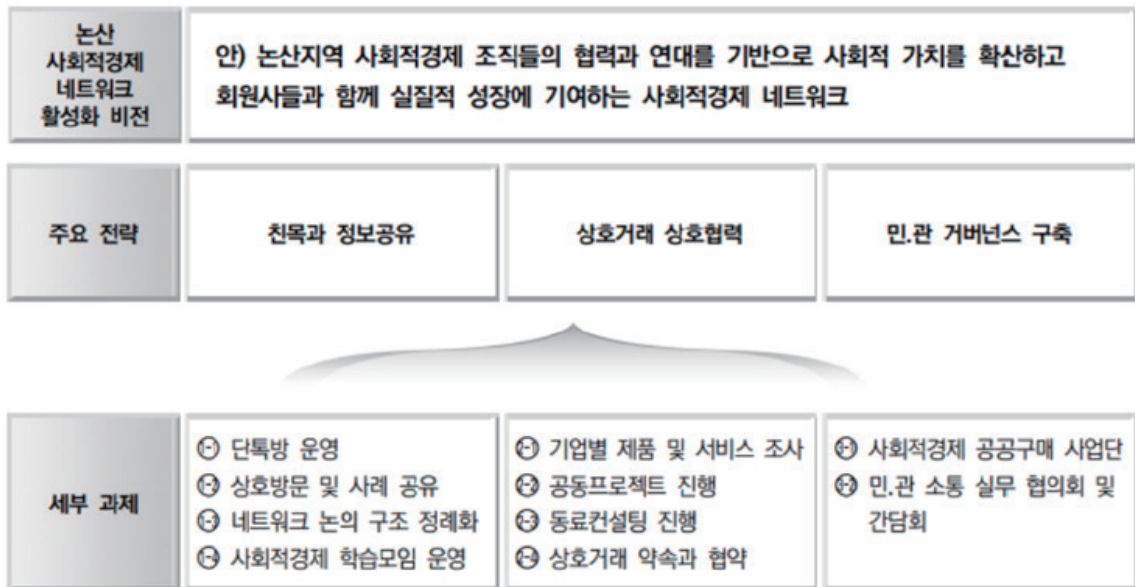
(2) 당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민관거버넌스 및 지방선거
 - 작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시 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을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변화시켰던 경험을 했음
 - 지방선거에 정책제언으로 적극적 개입과 이후 공약실행에 대한 점검 필요
 - 담당부서(팀장)장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여전히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있음(조례개정 등이 필요함)
 - 또한 민관정책협의도 진행하지 않던 것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동간담회 등을 제안을 하고 있음
 - 제도가 때때로 현장보다 속도가 느리기도 함. 관에서는 무조건 사례나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함. 이러한 대응이 창의적인 접근이나 아이디어 생성을 어렵게 함
 - 시에서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음. 새로운 안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현장에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해서 제안이 거절될 경우 네트워크 실무자가 동력이나 동기부여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네트워크 내부
 - 회원 증감 : 큰 변화가 없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기업협의회의 회원사 증가가 없었고,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중 신규로 가입한 사례가 없음. 조직 확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음
 - 협력구조 : 핵심 멤버들과 소통구조는 매우 좋아졌음. 매월마다 진행하는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와 네트워크 대표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약간씩 역할 분담하여 담당을 지정하고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음(총무역할도 나누어서 맡고 있음)
 - 특히 공동사회공헌 활동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중
 - 소규모로 네트워크를 운영해도 작동이 잘 될 수 있음. 2015년 소규모로(인증 2개, 예비 3개) 네트워크를 운영했지만 오히려 재미도 많이 느끼고 팀워크도 잘 되었음. 공고가 뜨면 예비가 인증에게 바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음. 또한 멘토링도 수월하고 조직간 이해도가 높고 기업 상호 방문도 활발했음. 당진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18개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논의나 공통분모·지향이 분산되기도 함
 - 네티즌이야 등의 외부자원을 통해 회원사들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음. 광역단위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지역과의 협력, 시민 이해도 향상
 - 중앙 및 광역단위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 지역에서는 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분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 등을 위해서 지역행사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운영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이 기업 운영에 바빠서 네트워크에 몰입하기 어려움. 네트워크에 신규 인물 발굴이 안 되고 후세 양성도 안 됨. 지원센터가 부재하니 지원센터 운영비 만큼 비용을 지원해주면 네트워크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인건비 보조) 시에 중간 지원조직 설립 또는 그에 수렴하는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 현재 시에서는 세무회계비, 홍보부스, 협의회운영(300만원) 지원해주고 있음
 - 초기 진입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공식 지원이 없음. 네트워크에서 그 역할을 소화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 진입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포기하거나 지원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함. 가령 사업 개발비 사용 방법을 모를 경우 일대일로 만나 직접 설명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음. 시에서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시와 정책협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 시에서 지원이 어려워 질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자체 수익사업(근로자 빨래 위탁 사업) 해서 사회공헌도 하고 자체운영비 마련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근로자 세탁사업의 수익금을 사회공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함

3)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논산

(1)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 열정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 발굴
- 회원 대상 교육 제공
- 네트워크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 지원사업 등 네트워크 회원사 대상 정보 제공
- 논산시와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2)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분과의 원활한 역할분담 및 정기모임 지속적 운영
 - 2021년도 워크숍을 통해 4개 분과 구성 → 현재 3개 분과 활동
 - 각 분과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조직 및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음 (하주현, 김병기, 배꽃잎, 이진선)
 - 워크숍 이전에는 하주현 대표 개인이 총무, 행정, 사업진행을 모두 맡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
 - 정례적 모임도 6명(조직) 정도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 회원사들이 월 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서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력적 파트너십
 - 2022년도에 논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네트워크와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 네트워크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도 많았지만, 현재 네트워크의 역량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했음
 - 민·관협력은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면서 수시로 논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 같음
 - 논산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외부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했는데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위기상황이 발생.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과 사회적경제협의회 실무협의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함.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신뢰와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논산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것의 한계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함. 외부에서 온 젊은 실무자의 관점이나 아이디어가 지역을 환기하거나 자극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통합지원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 맺기임. 통합지원기관에서 정답을 가져오기보다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점도 찾고 해결방안도 찾아야 함. 통합지원기관을 내부에서만 맡아도 안 되고 외부에서만 맡아도 안 됨. 내부와 외부가 관계를 지속해서 맺으면서 논의를 해야 함
- 네트워크 학습 모임 시 '재미'라는 요소의 중요성
 - 올해 네트워크 학습모임을 꾸준히 했지만(7-8월 제외)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음.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가치나 이론 위주로 학습했는데 학습자의 관심도나 참여율이 낮았음. 하반기에는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플리마켓 관련 교육을 했는데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호응이 높았음
-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네트워크)로 외연 확장
 - 올해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로 바꾸면서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들어오게 되었음. 사회적기업만 있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도 더 활성화되었음. 논산시의 취약계층이나 지역문제 이야기할 때 호응이 있음. 지역사회공헌이나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활성화 논의가 더 풍성해졌음. 또한 네트워크의 몸집이 커지면서 이전보다 영향력도 커진 것 같음

4) 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서산

(1)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3) 서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3개년 전략체계도

〈표 4-21〉 서산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3개년 전략체계도

서산 사회적경제 3개년 비전	민·관의 상호 협력과 실천을 기반으로 서산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역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주요전략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지원	민·관 거버넌스 실현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홍보	서산지역 특화사업 발굴
핵심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및 자원 인프라 확보 공공구매 및 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과 협력관계를 강화 민간영역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친숙하게 인식 사회적경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공공영역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 모델을 제시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독립 공간 확보 및 조성 ㉢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조사 ㉣ 공공구매 연구 및 매칭 ㉤ 유통·판매 시장 진입 지원 	<p>〈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성 <p>〈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 서산지역 경제인단체 연계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대상 사회적 가치 홍보 강화 ㉡ 시민 대상 사회적 가치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관련 이벤트 및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형 사회적가치 선언과 실행 ㉡ 찾아가는 문화체험 및 교육 ㉢ 지역돌봄 시범사업

- 네트워크 내 업종별 분과모임 진행
- 네트워크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 홍보 꾸러미 판매 기획 준비

(2)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분과 및 월례회의 운영
 - 분과별(돌봄, 환경, 꾸러미)로 팀장님 선정. 제일 활발한 곳은 꾸러미. 월례회의에서 봉사활동 연계해서 사업하는 회원사가 있는데 사업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1-2명정도 결합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임. 인원이 적게 나와도 매달 분과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나 아이템이 없는 환경, 문화예술 분과는 많이 흐지부지해졌음. 분과도 일정 정도의 구성원이 있고 각 조직별로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이 있어야 운영이 됨
 - 각 업체별로 관심이질만한 아이템을 발견해서 개발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금을 마련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음. 외부사업·회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꾸러미의 경우 답례품 외에 소비자에게 시제품보다 더 만족도가 높을 꾸러미를 구성하고 있음
 - 월례회의 2월에는 못했지만 매달 하려고 하는 중. 매회 6-10명 정도 참여. 많이 나오면 회원사의 1:3정도 나옴. 회장님 거의 매번 나오고, 구성원들은 매번 바뀜. 코로나19가 완화되어서 모임 독려를 하려고 함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회비는 35개 회원사 중에 7개만 회비 내고 있음(연회비, 인증사회적기업 70만원·나머지 30만원으로 월 3만원 이하).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업체(급여지급도 어려운)는 회비 부담스러워함. 회원사들이 월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서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네트워크 간사가 지원사업을 서치해서 공유하거나 복잡한 서류작업을 지원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음. 서류작성의 경우 잘 못 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 체크해주거나 그랬는데, 그게 네트워크 혜택이라면 혜택이라 할 수 있음
 - 2년에 한 번 실무자를 바꾸려고 함. 그러나 집행부가 한꺼번에 바뀌면 연결지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함
 - 직접 전화 돌리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효과가 큼
 - 회의 끝나고 선배 기업들과 일대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음. 유사업종에서 오래 일한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됨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력적 파트너십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 2022년 기준, 꾸러미세트를 통해 회원사들 참여 독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제품들 납품하려고 했음. 시(시민공동체과)와 지원센터에서 꾸러미세트(7개) 구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음. 시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 쪽에서 30%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보려고 함
 - 안내 책자(이전에는 가나다 순 배열) 리뉴얼(현재는 업종별 분류)해서 배포할 예정. 6월 말쯤 완성해서 7월 둘째 주쯤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서산시에 면담 요청했음. 학교 행정실에도 책자를 돌렸음
 - 초창기에는 시 관계자들 만날 때 많은 인원이 모여 갔는데 소수의 인원만 가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게 좋음. 또한 시 관계자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동영상 자료(충남사경센터 1분 요약 영상같은)를 활용하면 좋음
 - 시장 바뀌고 나서도 꾸준히 만나서 제안하려고 함. 10월 중 사회적경제 부스 운영 제안하고 11월초에 정식면담 신청해서 공약에서 사회적경제가 빠져있다고 이야기할 예정

- 공무원 대상 사회적가치 강화
 - 기존에는 공무원들을 소극장에 초대해 연극을 보게 했음. 올해부터 시의 권유로 500여 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문화회관에 초대해서 10개 업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기로 함. 작년과 비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 제고 활동을 함
- 꾸러미 사업의 어려움
 - 꾸러미 포장 디자인은 지역 대학에서 지원해줘서 결과물이 괜찮게 나왔음. 다만 아쉬운 점은 꾸러미 상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제한적이라는 점. 고향기부금제 취지에 맞춰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들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다 보니 20세트 중 4세트(3, 5, 7, 10만원)만 최종 선정이 되었음
 - 또한 꾸러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있었음. 개별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상품의 구성을 기획해서 답례품을 만드는 것인데 개별 조직 상품·서비스의 판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
 - 꾸러미가 잘 될 경우에도 문제가 생김. 꾸러미 주문량이 많아질 경우, 꾸러미에 대한 세팅비용이나 기획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까지는 예산에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꾸러미 단가를 매길 때 박스 제작·디자인비, 기획비용, 운송비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마진이 남지 않게 됨. 마진이나 생산과정 또는 생산 비용을 고려해서 단가나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음
 - 일부 업체들만 꾸러미에 참여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 네트워크에서는 꾸러미 사업의 정확한 취지를 이야기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가령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경우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들 위주로 구성했음을 이야기하고 답례품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품을 제작해볼 것을 제안했음(가령 비누를 제조하는 곳에 해미읍성 모양을 만들라고 제안·7만원짜리 참기름을 작은 병에 소분해 3만원 이하로 낮추라고 제안 등)
- 지속적인 만남의 필요성
 - 회장·사무국장·간사가 사비 쓰면서(시 보조금이 있지만 간식비나 식사비 용도만 가능·개인적 만남에서 지출 불가)회원사들을 만나러 다녔음. 개별 조직들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음
 -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옴. 회의를 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함. 꾸러미의 경우에도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 불우이웃 돕기 입찰공고를 보고 자연스럽게 서산넷 내부에서도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작년부터 시와 계속해서 꾸러미 논의하다 보니 올해 고향기부금 답례품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3. 네트워크 모니터링 결과 주요 이슈

1) 대상별 이슈

(1) 네트워크

① 네트워크 실질적 운영을 위한 참고점

- 네트워크 리더들이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네트워크 유지가 됨(총회, 월례회의, 정관 인지 및 공유 등).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가 기본인데 이를 충실하게 실행해야 함(공주, 당진, 서산 공통)
- 현재 네트워크 대부분 일부 구성원들(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쳐서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큼. 역할분담이 필요함. 서산은 2년에 한 번 씩 점진적으로 실무자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음
-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일하지 않는 이사는 과감하게 빼자고 제안해서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논산)
- 네트워크 사무국에서 회원사들 일대일로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게 중요함. 네트워크에서 회원사들을 개별 인터뷰하면서 현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네트워크 조직 유지에 중요함(서산, 공주)

② 네트워크에서 인내와 포용의 중요성

- 인내하면서 꾸준히 나오는게 중요함. 꾸준히 네트워크 모임에 나와서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생김(당진, 서산, 공주 공통)
- 상호거래 할애이나 개별조직의 물품 기증 당장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상호거래 할애이 추후 업무협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물품기증은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제고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음
-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회비를 내기보다는, 회비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식으로 설득해야할 것 같음. 회비를 냄으로써 연대정신이 구축될 수도 있음(당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큰 틀에서 배제의 관점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운영해야함. 마음이 안 맞거나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 만나면서 함께 일하고 크고 작은 갈등을 조율해가야 함(공주)
- 사회적경제조직들 진입단계에서부터 네트워크나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감이 생길 것 같음. 그렇지 못해서 사업개발비를 못쓰고 반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음(서류나 사업기획력이 안되어서)이런 조직들 중심으로 초기·중기로 세분화 대표자회의·중간회의·기초회의 세분화해서 네트워크에서 교육을 구성하면 좋겠음
- 당진은 내부갈등이 있었지만 타지역에서 워크샵을 통해 일정 극복함. 무관심보다는 갈등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 갈등을 매개로 조율이나 조정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음

③ 결사체와 사업체 균형 맞추기의 중요성

-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회원사·비회원사로부터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뭐 해 줄 수 있나?’라는 말을 들음. 네트워크 초반에 자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연대와 협력하기 쉽진 않음. 신뢰와 관계가 탄탄히 쌓이기 전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 시각이 있음. 네트워크 내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육이나 인식제고가 필요해 보임. 사회적가치뿐 아니라 경제적가치를 통해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하는데 쉽지 않음
- 공주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축제나 프리마켓을 개최했는데 회원사는 회원사대로 일을 했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참여한 조직들 각자가 가져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수익이나 회비가 많지 않아 무료행사나 자산 바자회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 행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논산과 서산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자체에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 일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논산의 경우 전주무관을 중심으로 5-6명이 사회적경제 학습을 하고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함. 네트워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의미가 있음. 서산에서는 아직까지 네트워크 회원사에게 큰 혜택은 없지만 간사가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찾아서 공유하거나 복잡한 서류작업을 지원해줬음. 이러한 활동이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음. 또한 서산은 지속적으로 모임 이후 선배 조직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함
- 논산은 네트워크 모임에서 간식에 신경을 많이 썼음.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간식을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사람들이 모임에 나오게 독려했음. 또한 모여서 이야기하다보면 서로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게 됨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기업체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지원사업에만 의지하고 네트워크에서도 받는 것만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내실을 탄탄히 하기 위한 운영방식이나 연계·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면 좋겠음(서산)
- 사회적경제의 주요 미션을 지역경제로 설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존립 근거를 세우고 영향력을 높이면 좋겠음.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이 아니더라도 지역문제에 관심 있고 활동하려는 일반기업들과도 연계해서 지역에 봉사해야 함(논산)
- 네트워크에서 사회적가치만을 강조할 때 설득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되려 기업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운듯한 느낌을 주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가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임(논산)

④ 사업 및 법인화 신중한 논의와 판단 필요

- 지원사업이나 지원제도가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제도들이 네트워크의 구성과 유지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법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음. 긍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전유물로, 부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사업을 선불리 했다가 네트워크 본래 취지를 잃고 실무자에게만 일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논산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원센터 위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결집이나 정비가 된 이후에 고민해 보기로 했음. 회원사간 이해와 신뢰 관계가 생기고 나서 위탁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공주에서는 네트워크가 중간지원조직화 되는 것을 경계했는데 당사자조직의 가치중심적인 게 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⑤ 네트워크 구성원 세대 교체 반영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안에서도 확실한 세대차가 있음. 들어오게 되는 경로가 다르게 됨. 초창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시민사회나 공익을 목적으로 모였다면 중후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제도를 통해 들어오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게 됨. 후반기에 유입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인력 동원 형식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당진, 공주)
- 사회적경제 1세대 운동권이 많았는데 현재 유입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보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그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공주, 당진)
- 네트워크 유입 시점이 다른 세대 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장이 필요함.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그러한 교류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 신세대와 구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하고 신세대들만 모일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함(당진, 논산, 공주)
- 연령대가 낮은 회원사들 시에서 그리고 협의회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별도 모임을 만드는게 좋음. 경력이 오래되고 연령대가 높은 조직들과 함께 할 경우 그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모임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음(논산)

⑥ 지역과 관계 맺기의 필요성

- 당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시장과 협약을 맺었음. 공공구매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한 이후에 참여율이 저조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을 합류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
- 당진과 공주는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공익활동지원센터)관련 단체나 부서와 관계를 맺었는데 보다 다양한 활동 경로를 찾을 수 있었음. 당진은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 간담회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
- 논산은 자체적으로 플리마켓을 하면서 지역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음. 논산시 홍보과와 지방신문·방송국에서 보도자료를 내주고 전광판 홍보도 해주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도 공유 해줬음

(2)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

① 중간지원조직과 네트워크의 역할 분담 및 조정

- 중간지원조직과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경우, 역할이나 사업이 중복되기도 함. 역할이 겹치는 경우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편의상의 이유로 중간지원조직을 먼저 찾기도 함. 네트워크의 당사자성을 우선적으로 키우고 중간지원조직이 이들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 조정이나 배분이 필요해 보임(공주)
-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현장의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논산)

② 네트워크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 및 제안

-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진입에 대한 역할·기능에만 집중되어있음. 진입 이후 육성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임. 지방 소도시 중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한 경우 더더욱 물어볼 곳이 없음(당진)
- 사업이나 서류가 익숙하지 않은 초기진입 단계 조직들에게 재정적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멘토를 연결해줘서 일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음(네트워크 멘토에게는 지원금 제공).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은 부재했음(논산)
- 지원사업 간 연계나 맥락이 똑똑 끊겨있는 점이 불편함. 지원사업 간 연계나 맥락을 고려해서 예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음. 지원사업이 다 끊겨서 하다 보니 시너지나 효과성이 떨어짐. 또한 지원사업에서 예외조항 같은 것을 뒤서 좀 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음. 가령 지역문제 해결 기반 협력사업을 할 경우 참여 대상을 개별조직으로만 둘 게 아니라 협회나 연합회도 들어갈 수 있게 했음 좋겠음(서산, 당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때 사회적경제조직 실무자·경영자 입장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겠음. 대부분 생존이 어렵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매출 증대와 연계해서도(컨설팅, 판로개척 관련 논의 등)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음(서산)

③ 네트워크 사업 성과

- 네트워크 지원사업 통해 현재의 분과장들이 책무성을 지니게 된 것 같음. 분과 구성원들 중심이 아닌 분과장들이 구성원을 이끌고 가는 양상이긴하지만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끌고 간 노력이 분과장들에게는 의미있는 경험인 것 같음(논산)
- 넷짚이야 사업 협회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넷짚이야가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의 인식을 깨게 하는데 도움이 됨. 하지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3-4년 정도 꾸준히 해야함(인증막바지인 곳들). 대표들의 인식을 깨는데 1-2년으로는 부족하고 3-4년의 시간이 걸림(당진)

(3) 정책·제도·거버넌스

① 지역 소도시에 맞는 별도의 정책·제도 필요

- 대도시 아닌 지역 맞춤형으로 정책 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체감함. 특히나 인력·인건비 문제는 대도시와 소도시의 체감 정도나 난이도가 다름. 인력 충원 부분에서 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천안과 같은 중소도시만해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 소도시는 사회적경제조직 개수가 적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
- 지방 소도시에는 사업개발비, 인프라 구축비, 전문인력 지원비, 일자리 창출 비용에 대한 예산이 크지 않음. 또한 중앙보다는 지자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짐

② 네트워크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

- 공주, 당진, 서산 모두 행정·사무 인력의 부족을 호소. 2022년 사업에 참여 중인 청양과 2021년 사업에 참여했던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일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했음
- 지방 소도시의 경우 네트워크 운영할 때 단기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미미함. 지역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경력이 있는 청년들이 일하기에 봉급이 낮고 금액에 맞춰 고용할 수 있는 청년은 잘 없음. 그리고 청년들이 잠깐 일하고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음. 충남의 경우 주변의 다른 중소도시(천안, 아산)로 떠나는 경우가 많음. 상주하는 청년인력이 없음
- 네트워크의 사업비·운영비를 집행할 인력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일시적인 일자리 보다는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해 보임. 사업비·운영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높이면 좋겠음.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도와 6:4나 8:2로 분담하면 좋을 것 같음
- 일시적 인력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전문인력 충원하면 좋겠음. 단순히 인건비를 올리기 보다는 네트워크 사무국에 상주하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네트워크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필요함. 사업비는 전국단위나 도단위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하거나 기업에다 후원 프로포절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임

2) 요약

-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했던 4개 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네트워크 운영이 내·외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었음. 네트워크 내부에서도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질문이 ‘뭘 해줄 것인데’임.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익을 내기 어려움. 장시간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성과나 이익이 발생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네트워크의 사업적가치·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간 균형을 맞춰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회원사들로부터 받기도 해야 함
- 또한 네트워크의 연차가 쌓이면서 구성원 변동도 이루어졌는데 시기별로 구성원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음. 초창기 네트워크의 구성원과 현재 네트워크 구성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조율해서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재건할 필요가 있음
- 4개 지역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에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모이고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그 외의 유관단체들과도 결합할 경우 결사체와 사업체 균형을 맞추며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거나 정책·제도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음.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소도시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 양상이 제각각임. 특히나 소도시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청년들이 주변 중소도시나 대도시로 이동을 많이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안했음
- 지역 소도시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4. 네트워크 운영 단계별 장애요인 체크리스트

구분	주제	내용	어려움 여부		어려움 정도			
			여	부	상	중	하	
설립	네트워크 조직화	- 초기 적극적 설립 추진 독려 리더십 여부						
		- 설립 추진의 필요성 및 동기 부여 정도						
	외부와의 관계	- 지자체의 간섭 및 지자체 주도성 정도 - 지자체와의 협력적 분위기						
설립 초기 단계	네트워크 조직화	- 다양한 부문, 분야, 업종 등의 참여 - 활동 사회적경제 조직 중 참여율 과반수 이상 - 네트워크 활동의 비전 및 사명 명확						
	네트워크 사업 및 운영	- 회비 및 네트워크 자체 재정 마련 -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 가능 - 네트워크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관계	- 지방정부와의 상시 논의 구조 마련 -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시 파트너십 가능						
	지역사회 관계	- 비영리, 민간네트워크와의 협력과 지원 - 사회적경제 등 전문가 그룹의 협력과 지원						
	운영 단계	네트워크 조직화	- 총회, 이사회 등 회원사들의 논의 구조 정상적 운영					
			- 신규 리더십(이사 등 사무국)의 발굴과 교체					
- 네트워크 활동의 방향과 사업성과의 정기적 점검과 성찰								
- 회원사들의 윤리적 운영을 점검하는 내부정화 기능								
- 회원 조직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 및 적절한 역할분담								
- 회원사 간의 갈등조정 및 완화								
- 신규 회원의 지속적 증가								
- 정보소통과 회원사 관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 활동								
네트워크 사업 및 운영	- 결사체로서의 조직 활동과 조직강화 활동의 균형							
	- 회비 및 네트워크 자체 재정 안정화							
	-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후원 확보 - 네트워크 자체 공동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추진 - 네트워크 자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 증가							
지방정부 관계	- 지방정부와의 상시 논의 구조 마련							
	- 지방정부 사업 및 위탁사업 진행 가능 - 지자체 외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지역사회 관계	-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적 관계							
	- 중간지원조직과의 사업적 역할 분담 여부							
	- 비영리, 민간네트워크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 전문가 및 대학 기관 등과의 공동, 협력 사업 추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제5장 정책제언

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 의지 강화 필요

1.	1-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 의지 강화 필요	1-2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정비와 지원사업의 실행방안 마련
	1-3 의제별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논의 구조마련
	1-4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계획 수립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

-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주체와 지방정책에서 사회적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방정부 해당 부서와의 협력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간의 정책 공동생산과 평가가 형식화 되거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책임과 실현은 민간주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속적 거버넌스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 간에 △심층적 의사소통과 신뢰 형성 △공동의 목표 지속적 확인과 합의 △협력을 통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쪽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실행 의지라고 할 수 있음
- 협력의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에 거버넌스가 존재하였을 경우, 협력단계로 도달하는 데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뒤따라옴. 단,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과정이 쉽게 극복되고 단축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³³⁾ 따라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거버넌스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쌓아가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가치의 확산이라는 민·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함
- 공동의 목표는 단순히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움. 협력에 참가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사명과 목표,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숙의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최소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 논의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간계획 및 예산수립과 그에 대한 성찰과 평가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2021 충남 사회지표 시군편·종합편

-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외에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실무기관 정책협의회, 정기적 행정과 네트워크의 간담회 및 연찬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다양화하고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정책협의 및 연찬회 등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들의 정책 파트너가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협의회 조직과 네트워크임을 인식시키고 △보조금 사업과 지원사업을 진행할 시 민간조직과 사전 논의를 거치고 협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을 요청함

2)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 충청남도 지역의 지방정부는 서울 및 경기 등과 같은 수도권에 비해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정도가 조금은 뒤쳐져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14~2016년 사이에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강화시켰기 때문임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례의 의미와 역할은 막강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지역단위에서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조례 제·개정이 필수임. 민관의 협력 및 논의구조 또한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및 지원조례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라는 논의 구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 따라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등과 같이 ‘육성위원회’ 보다는 낮은 수위의 실무 논의 구조를 명문화시키고 최고 상위 논의기구인 ‘육성위원회’에서 각 논의기구에서 확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금보다는 민간 논의가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서울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21조 4항에는 사회적경제지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있음.(「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실무 논의를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충청남도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5개 시·군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3) 의제별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논의 구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주적 경제공동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도 함.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외에 전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와의 논의 구조 외에도 해당 부서와 해당(업종 및 의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구청 자원순환과는 노원사회적경제연대, 퇴살림사회적협동조합(노원지역 자원순환 사회적경제조직 연합) 등과 함께 노원구 자원순환의 날 ‘노다지장터’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 바 있으며,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SOS 사업’ 등을 지역기반 통합돌봄사업의 민간논의 구조(협의회) 등에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결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4)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서비스 공공구매 계획 수립

-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지자체 공공구매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 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임
- 지방정부 공공구매 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구매할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종을 조사하면 다수의 기업이 ‘서비스’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해당부서와의 연계와 매칭이 중요함.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의제별 주제별 맞춤형 의제회의가 정착한다면 공공구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미스매칭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통해 품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구매에 참여할 경제조직을 모집하고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생산 총량을 조사하면 미스매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2.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2.	2-1 네트워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기초단위 네트워킹의	2-2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2-3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과 협동 사업의 개발과 지원
	2-4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1) 네트워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증가와 활동 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적 성장을 하면서 당사자 조직의 설립과 네트워크 활동을 내·외부적으로 지원받아 왔음. 그러나 그러한 성장의 과정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임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의회 및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를 확대해야 하는 기본적인 미션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과 설립과정에서 많은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됨. 그리고 네트워크가 지역 활동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초기 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네트워크 명백한 유지할 뿐 몇몇 소수 리더들의 사조직으로 변질되기도 함
- 또한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례의 경우 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의 위탁을 맡기 위해 네트워크를 법인화 한 몇몇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명 무실한 네트워크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이 당사자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주(自主)와 자조(自助)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의 동기부여에서 시작되어야 함. 내부적으로 회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가치와 의미가 잘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의미성에 대해 알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광역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핵심리더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자문과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상호 정보와 신뢰가 부족한 초기 네트워크 단계의 경우 당사자 조직 내부에서 네트워크 결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초동 주체를 모집하고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방향과 원칙, 조직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려되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의 동력과 뿌리는 당사자 조직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 중간지원 조직은 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뿐, 네트워크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조직운영의 책임은 네트워크 회원들의 결정과 책임감 있는 물적·인적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포함)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네트워크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사무국 인건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회원사의 회비 및 재정후원이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다양한 보조금 및 외부 지원사업 확보를 통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원조직(광역 및 기초)은 네트워크에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인의날, 네트워크 파티, 상호거래 수요조사, 사회가치현황 조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조직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자원이 부족한 네트워크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

3)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협동사업의 개발과 지원

- 초기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회원사들 간의 활동이 일정 정도 안정화된 성장한 네트워크에는 회원사들의 지역에서 활동을 보다 고도화, 내실화시킬 수 있는 지원과 협력사업이 필요함
- 지난 3년 동안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네트워크에 바라는 가장 큰 갈급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사회적가치를 확산 △회원사 간의 상호구매와 상호거래의 활성화 △공동 유통 및 마케팅 △ 공공구매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 △자조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초기 정착시기를 거친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사업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회원의 확대와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음
- 기초 및 광역 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회원사들에게 공통으로 협력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등을 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상호거래의 실적을 네트워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트워크 힘을 실어주는 방식 등을 들 수 있음

4)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중에는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형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처럼 비영리적 성격을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는 조직 등 다양한 유형이 활동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들은 본인을 '기업'이라고 소개함
- 동일한 기업활동이라고 해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활동은 자본주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함. 즉, '효율성과 교환'의 법칙보다는 지역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는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사회적경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각자가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슈와 제도개선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예산, 조례 등에 대해 네트워크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해야 하며, 업종별 이슈에 대해서는 각 해당하는 업체들의 사업분과, 사업네트워크, 업종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3.	3-1 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참여와 책임 강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3-2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정보 공유와 신뢰 강화
협력과 연대 강화	
	3-3 네트워크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확보

1) 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참여와 책임 강화

- 충남 네트워크는 대부분이 '임의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 법인화를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과 경영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이사회에 참여하는 몇몇 기업 이외는 네트워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 할 수 있음
- 성장하는 수도권권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해 보면 네트워크 활동이 성장하고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외에 다양한 논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이사회는 네트워크 경영, 운영을 결정하는 성격을 띠게 되고 실질적 사업 논의와 실행은 사업위원회 및 분과, 팀 등으로 세부화된 논의 구조에서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 및 분과 등으로 논의 구조가 다양해 졌을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초기 세팅 과정에서 다수의 회원기업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구조화 하는 것이 중요함

2)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정보공유와 신뢰 강화

- ‘협의회’, ‘네트워크’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느슨한 협의구조는 소수 대표들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되기보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헌신이 기반이 될 때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음
- 회원사들이 네트워크를 찾고 필요성을 느끼며 협동할 수 있는 기반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업종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 간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식적 논의 구조의 공개도 매우 중요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활동의 대부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위원회(분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기구의 회의록과 활동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수 회원들은 네트워크 논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음

3) 네트워크의 공공성·공익성 유지 및 확보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타 지역 사례를 분석했을때(2020. 2021년도 결과보고서 참조) 성장하고 확대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네트워크가 강력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 서울 광진, 노원, 강북 등 네트워크 조직은 법인화 과정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법인으로 비영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 이슈에 대응하는 분과와 위원회를 두고 있어 각 분야별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회원조직들의 결사체인 ‘협의회’, ‘네트워크’들이 자주 겪게 되는 오류는 회원사들의 이익과 편익만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이익단체화 되는 현상임.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참여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편익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개별조직들은 사회적가치와 지역 문제 해결의 의제를 주장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네트워크에는 실질적 사업을 확보하거나 판매가 잘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 네트워크가 회원사들의 이익과 사업확보를 위해서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과 연대를 무시하고 비슷한 유관단체 및 네트워크를 경쟁자로 두고 적대시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네트워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내부적으로 가져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 등으로 확보하여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시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참고자료

제1장 서론			
연번	자료명	출처	시기
1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8
2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수립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투자지원재단	2020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연번	자료명	출처	시기
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관계부처합동	2021
2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	관계기관합동	2022
3	충남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2018
4	윤정부서 사회적경제 위축될까? 사회서비스-ESG 강화 속 확대가능성 기대	이로운넷	2022
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충남연구원	2021
6	윤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밑그림 나왔다	이로운넷	2022

제3장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과제수립			
연번	자료명	출처	시기
1	2021년 서천군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서천군	2021
2	안전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최종보고회 자료	서천군	2020
3	서천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천군	2019
4	서천군, 5만 인구 활력인구 정책에 총 2287억 집중 지원	서천군(보도자료)	2022
5	2021충남사회지표 종합편, 시군편	충남도청	2021
6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7	서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분과별 회의 자료	서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2
8	2021년도 서천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내역	서천군	202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

발행일 2022. 11.
발행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처 사회투자지원재단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서천군